

Seminar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2011년 5월13일(금) 오전10시~오후4시  
명동청어람3실



공동주관 / 목회사회학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와함께하는 지역공동체세우기

발행일 \_ 2011년 5월 13일

발행인 \_ 이동원

편집인 \_ 조제호

편 집 \_ 박제민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www.cemk.org](http://www.cemk.org)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기윤실 블로그에서 세미나 이후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minar**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 교회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2011년 5월13일(금) 오전10시~오후4시  
명동청어람3실



공동주관 / 목회사회학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행사 순서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10:10-10:30	시작묵상	<b>조성돈</b>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10:30-12:00	강의 1	<b>정재영</b>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12:00-1:00	점심식사	
오후 1:00-2:30	강의 2	<b>정선철</b> 소장 (사회설계연구소)
2:30-2:40	휴식	
2:40-4:00	강의 3	<b>조경열</b> 담임목사 (아현감리교회)
4:00-4:10	광고 및 마무리	<b>사회자</b>

# 목차

교회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 ■ 사회 : 조성돈 교수

### ■ 시작목상

#### 모든 도시와 마을에 (마9:35) 06

조성돈 교수 \_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 ■ 강의

#### ①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 07

정재영 교수 \_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 ② 도시지역 공동체 세우기 19

정선철 소장 \_ 사회설계연구소

#### ③ 도시지역 교회의 지역공동체 사례 - 북아현동과 아현감리교회 61

조경열 담임목사 \_ 아현감리교회

## ■ 공동주관 단체 소개 69

시작묵상

모든 도시와 마을에  
마 9:35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huioscho@naver.com

#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ccyong@gspst.ac.kr

## I. 교회와 지역 공동체

최근의 공동체 개념은 공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장소의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커뮤니티와 구별하여 지역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라는 면에서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local community'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곽현근: 128).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의 공동체들이 와해된 상황에서 삶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역 사회에 공동 의식에 터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는 과거에 자연발생으로 형성된 촌락공동체와 같은 자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맥락에서 공동의 목적과 이념,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도적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신명호 외: 53). 따라서 지역 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한다.

사회학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 역시 교회가 터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 실존의 근거가 바로 지역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주목한다. 이전에는 주로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주도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참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체주의 운동 활성화가 필요해지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가 경쟁을 앞세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원리가 지배한다면, 공동체 운동은 배려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마을 만들기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일종의 주민자치운동으로 여기서 '마을'이란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임을 자각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총칭한다. 대부분의 도시 계획이나 도시 재개발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마을 만들기는 관 주도의 지역 개발 운동에 오히려 저항하며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대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관변식, 학술적 한자어를 피하여 '마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이명규: 268-273).

그리고 '마을 만들기'란 그 공동의 장을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는 '눈에 보이는 마을 만들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만들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마을'이란 말 그대로 물질로 구성되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를 포함하는데, 곧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시민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CHE 선교회와 같이 지역사회를 선교 대상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스탠 롤랜드: 1장). CHE는 Community Health Evangelism의 줄임말로 총체적 지역사회 선교의 관점으로 특히 위생 환경이 열악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우물을 파주는 일 등을 통해 선교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제3세계 빈곤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역 사회 개발이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개발보다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도시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은 촌락 지역에서는 개발 전략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II.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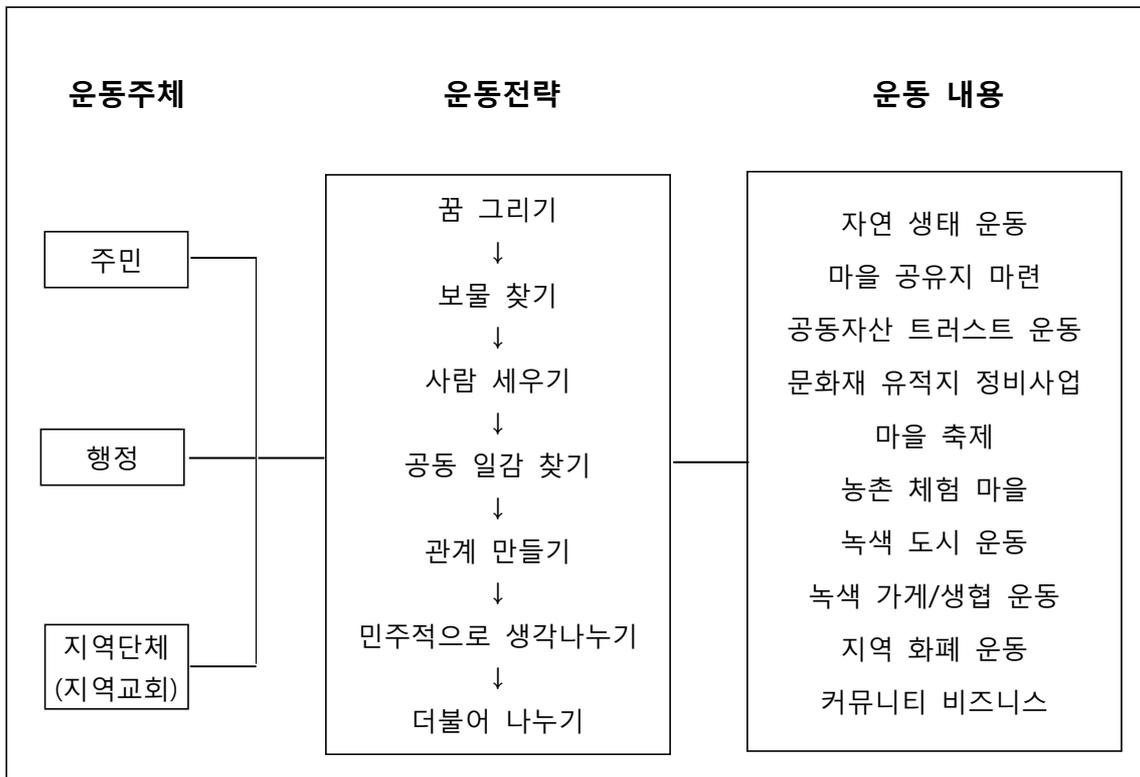
지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타결하는 참여민주주의 훈련과 주민자치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배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해 주는 힘이 바로 신뢰와 협동, 자치와 참여라는 사회 자본이다(김영정: 14). 여기서 교회가 하나의 사회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화된 개인들이 운동 경기를 보듯이 모여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는 사회관계를 발전하게 된다면, 시민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자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모델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운동의 제1 주체는 시민 곧 지역 주민이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지역 단체와의 협력은 필요하다. 행정 기관의 역할은 공동체 역량구축을 위한 조력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다. 행정기관은 지역 내 공동체의 실체와 그 역할을 파악하고, 지역의 각 공동체 역량을 상호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연결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역량은 내부 역량들을 상호 연계하고 결집했을 때의 결

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김구: 74-75).

지역 공동체 운동은 주민, 행정기구, 지역 단체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역 단체의 역할은 공동체 운동 주체들의 파트너십 속에서 이 운동의 지속성을 견인하는 성실한 중개자이자 매개자이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단체 활동가들은 관련분야를 폭넓게 학습하고 종전의 감시형, 비판형, 이슈형의 행동양식보다는 참여형, 창조형, 대중형의 행동양식으로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지역 단체에는 지역 교회가 포함된다. 지역 교회 역시 지역 단체의 하나로서 교회가 가진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공동체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림>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모델



### Ⅲ 지역 공동체 형성 전략

이제까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한 사역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개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매우 의미 있고 우리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경우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여겨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복음전도의 접착점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또한, 도덕적 우월감 위에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수혜자를 대상화해온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특정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않고, 주종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 역시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에서만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 교회 내 역량 강화

### (1) 교회 내 공감대 형성

이러한 지역공동체 세우기(communit building, 아래에서 CB로 줄여 씀)에 교회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교회 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CB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뛰어들게 되면 교회로부터 충분한 지지나 후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CB에 참여하기 이전에 운동을 위한 교회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첫째로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CB의 필요성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통해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CB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②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③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는가?

### (2) 인적 자원 동원

다음으로는 교회 안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활성화 되어 있는 다양한 소모임들을 TF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교회 전체가 지역 사회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소모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더 자발성이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교회 구성원들의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을 조사하여 지역사회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소모임을 구성하여, 이 소그룹 TF팀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조사하고 직접 실천 주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전략기획은 지역문제의 효율적인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행위의 수단이므로 한가지만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 사회 특성, 교회의 역량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전략팀 구성은 5-6명 정도로 하되, 주민의 참여를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구성원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은 일대일 접촉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구성하고, 목회자, 실무자, 주민대표, 시설 및 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이 운동의 전개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 (3) 물적 자원 동원

물적 자원으로는 먼저 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 공동체 활동 예산으로 할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교회 재정의 일정 부분(대략 10% 정도)을 지역사회 활동비로 정하고 소모임을 지원대상자와 연결시켜 이들의 필요를 도

을 수 있는 책임봉사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또한 교회 공간을 지역 공동체 운동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획이나 중간 점검을 위해서는 회의 공간이 필요하며 운동 내용에 따라서는 교회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교회를 건축할 단계에서부터 교회 공간을 예배나 교회 집회뿐 아니라 지역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CB 관련 활동을 교회 공간에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4) 교회 역량 점검

사전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CB에 참여하기 위한 교회 역량을 점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점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과거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기여한 경험이 있는가?
- ② 교회는 지역의 다른 사회자원과 함께 연대한 경험이 있는가?
- ③ 목회자는 CB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④ 교회 내에 CB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는가?
- ⑤ 교회 내에 CB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문가가 있는가?
- ⑥ 교회 내에 CB를 수행 할 경우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가?
- ⑦ 교회는 CB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가?
- ⑧ 교회의 공간을 CB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가?

## 2. 지역공동체 운동 내용 설정

CB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참여할 CB의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 활동은 앞의 그림에 제시한 것과 같이, 자연 생태 운동, 마을 축제, 농촌 체험 마을, 녹색 도시 운동, 녹색 가게/생협 운동, 지역 화폐 운동,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공유지 마련, 공동자산 트러스트 운동, 문화재 유적지 정비사업 등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지역의 필요와 실제 접근 가능한지를 따져서 CB의 내용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CB 활동에 직접 참여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기존에 있는 지역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중에 하나는,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운동을 할 수도 있다.<sup>1)</sup>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기관이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활동에 목회자나 교인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 행정 기관인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와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여 지역 활동을 하는 교동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교동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기존에 구성된 교동협의회에 적극 참여한다면 차후에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1) 주민자치센터 활동과 관련하여 마포구에서 출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이드 북인 「살고싶은 우리동네 만드는 32가지 방법」(서울: 마포구청, 2008)이 참고할 만하다.

### 3. 주민 연계

지역공동체 세우기는 교회가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도를 해야 하므로 지역주민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을 접촉해야 하는데, 먼저 지역사회내의 모든 거주민을 '주민'이라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 토론에 참여하며 실제로 시간을 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야 한다. 특히 CB를 위해 설정한 이슈에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여 CB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 대표를 구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수 차례 회합 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CB에 참여할 임원진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주체 역량을 증대시키고 리더십 훈련도 병행한다.

### 4. 관공서 연계

다음으로 관공서와의 연계를 시도한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공동체 역량구축을 위한 조력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다. 행정기관은 지역 내 공동체의 실체와 그 역할을 파악하고, 지역의 각 공동체 역량을 상호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연결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역량은 내부 역량들을 상호 연계하고 결집했을 때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의 속성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연계하고 협력하되 운동의 주체는 반드시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5. 주민과 함께하고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실천

CB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나 지역 욕구 조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 욕구조사를 통해 이슈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좋은 이슈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고, 절실하게 와 닿으며, 공감대가 넓은 이슈이다. 또한 이해하기 쉽고, 표적이 명백하며, 자금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이슈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한 간략한 내용을 다음에 제시한다.

#### (1) 지역 조사

##### 1) 고려해야 할 사항

- ① 지역사회의 기본 특성은 무엇인가?
- ②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나 계층적 특성은 무엇인가?
- ③ 지역 주민들의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 ④ 지역 주민들의 태도나 규범 및 가치관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⑤ 지역 주민들의 공통의 관심사나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가?
- ⑥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 ⑦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 기대, 바람 등은 무엇인가?

##### 2) 조사 내용

- ① 자연환경 조사: 지역사회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 지역적 특성을 조사.
- ② 인구거주자·사회구조 조사: 지역사회의 성별, 연령별, 출신지별, 계층별 인구 구성조사,

인구이동과 인구 밀도에 관한 사항 조사. 거주민들의 거주 이유 조사.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인접 지역과의 관계 등을 조사.

- ③ 향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조사: 지역 사회 주민들의 독특한 전통과 관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 향토 행사, 지역 특유의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 종교와 미신, 전설 등의 실태를 조사.
- ④ 산업과 경제생활 조사: 지역 산업 구조의 특성과 경제생활 수준과 방식을 조사.
- ⑤ 주민들의 생활 및 의식 조사: 이웃관계, 가치관과 도덕규범, 전형적인 태도와 행동 양식을 조사.
- ⑥ 사회단체, 공공시설과 행정 기구 조사: 지역사회에 어떠한 행정기구, 공공시설 기타 사회 단체, 복지 시설이 있으며 이들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 3) 조사 단계

- ① 지역 사회 범주 정하기: 현실적으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범주를 정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이 되는 더 큰 단위의 사회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함.
- ②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지역사회의 구조와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 사회 지도를 통해 가시적으로 표현함. 사회 계층과 인구 분포(장애인, 소년가장, 독거노인,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의 형태적 구분(상업 지역, 주거지역 등), 공공시설(공원, 학교, 관공서 등)을 표시.
- ③ 지역사회의 특성 파악하기: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 도시화 정도, 인구 분포의 특성, 전통 문화와 역사 유적지 등을 파악함. 특별한 역사 경험이나 지역 공동의 기억도 중요한 요소임.
- ④ 지역사회 주민 이해하기: 지역 주민들의 연령, 성별 구성비, 교육 수준, 직업 분포, 삶의 주기, 거주 기간, 사회관계 등을 파악함.
- ⑤ 표면 밑으로 들어가기: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 사회 활동, 여가활동, 주민들의 소속감, 애향심 등의 삶의 경험을 파악함.
- ⑥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정의하기: 위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의함.

## (2) 지역 욕구조사

### 1) 욕구조사의 고려사항

- ① 기본사항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족, 교육, 직업, 종교, 주택 상태 등.
- ② 개인 및 가족의 생활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③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주민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가?
- ④ 지역 공동체 운동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인지도, 인식(긍정적/부정적), 기대 등은 어떠한가?
- ⑤ 지역공동체 운동을 위해 중요한 이슈나 공동의 일감은 무엇인가?
- ⑥ 지역주민들은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 2) 욕구조사의 종류

- ①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 욕구조사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문제 수준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 ② 서비스 중심의 욕구조사: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고용서비스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의 품질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③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와 서비스 중심의 욕구조사를 결합시킨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를 파악. 지역사회 주민은 개별적 수혜자이면서도 특정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조사로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수혜자 집단별로 서비스 기능별로 세부적인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3) 욕구조사의 자료수집 방법

- ① 일반조사(general survey): 지역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질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욕구 조사를 하는 방법.
- ② 표적 집단 조사(target population survey): 문제에 직접 관심 있는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표적 집단은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서비스의 자격 요건 곧 소득, 연령, 건강, 성별 등의 변수나 서비스의 이용수준 또는 지리적 변수 등으로 층화해 나눈 집단.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조사와 표적집단조사 방법을 한 설문지에 구성해 동시에 파악하는 경우가 많음.
- ③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전문가 등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 복지관 자문위원회, 주민 참여 운영위원회를 활용.
- ④ 사회지표조사: 기존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측정지표를 통해 경향이나 그 추이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소득수준, 빈곤인구율, 실업율, 인구 센서스 등.
- ⑤ 2차 자료 분석: 지역 주민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면접기록표, 업무일지, 서비스 대기자 명단, 상담 기록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
- ⑥ 지역사회공개토론회 :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해 공개적인 논의를 하는 방법.

지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원목록집을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원목록에는 자원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활용도, 활용만족도, 이용자명 등을 기입한다.

### (3) 마을 만들기 전략

구체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치 창조'이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산업화 시기에 우리 사회는 성장과 개발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생존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탈산업화 시기에는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시되고 경쟁과 배제보다는 배려와 포섭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탈산업화 시기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치를 창조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 공동체 세우기 전략은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의식을 형성하고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과정과 전략들은 꿈 그리기, 보물찾기, 사람 세우기, 공동의 의제와 일감 발굴하기, 관계 만들기, 민주적으로 협의하기, 더불어 나누기 등으로 나누어진다.<sup>2)</sup> 다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지역 공동체 세우기는 먼저 '꿈을 그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본에서 일평생 마을 만들기에 헌신한 전문가인 마을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꿈을 그리는 것'을 꼽았다. 꿈은 공동체의 회복, 아름다운 동네, 편리한 시설, 생태적 삶 등을 소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꿈을 그리고 전파하는 단계가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기독교 정신과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꿈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물찾기'는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물(흔히 쓰는 표현으로 자원)을 찾는 것인데, 이러한 보물을 찾는 경우 매우 큰 추진력과 탄력을 받게 된다. 보물을 소재로 하여 마을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고 지향성을 설정하기도 한다. 마을이 전통적으로 구심점으로 삼아온 역사나 자랑거리가 마을의 보물이 될 수 있는데, 기후나 자연 경관과 같은 풍토적 가치와 역사 사건이나 문화유산과 같은 역사적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나 행사, 축제와 같은 행위적 가치로 구분된다(다무라 야키라: 70:74). 특히, 비도시지역의 경우 지역 특산물, 도시 지역의 경우 잊혀진 역사나 문화유적 등이 좋은 보물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에코뮤지엄이란 프랑스에서 1960년대 후반에 생긴 개념으로 불어의 에코뮤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은 스웨덴의 스칸센 야외박물관으로 시작한 생활사 복원운동의 전시기법에서 처음 생겼고, 생활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집의 박물관'이라는 아이디어에서 기인했다(오하라 가즈오키: 19).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태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에코뮤지엄은 단순히 생태학에 관한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 그 자체가 지역에서 환경생활의 친화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보전형 마을만들기'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윌글: 21-22).

이렇게 보면, 마을에는 공동체 운동의 자원이 되는 다양한 보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유후인잉 마을은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사례이다. 녹음이 우거진 분지형태의 온천지대에 위치하여 습윤 식물의 보고였던 이 지역에 골프장 건설 붐이 불게 되었을 때 주민들은 '유후잉의 자연을 보호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자연 보호를 주장하며 폭넓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료간(여관)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힘으로 친환경적인 생활형 관광지를 만들어 마을 자체가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박물관이자 관광지로 만든 것은 환경보전형 마을만들기의 매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사람 세우기'는 현장 일꾼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참여자를 교육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실성과 공평성을 가진 일꾼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동체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없이는 공동체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주민 대표가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모두 주인 의

2) 이 내용은 이종수,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이종수 엮음, 「한국사회와 공동체」(서울: 다산, 2008)의 23-30쪽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식을 갖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성원의 합의와 관심의 최대 공약수로서 공통의 의제와 일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의 의제와 일감은 가능하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지지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의제와 일감을 설정하지 않고, 공공의 관점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이해관계를 중시할 경우, 주민 운동이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는 동네 하천 살리기, 생태 농업과 같은 자연 생태 운동이나 마을 공유지 마련, 공동 자산,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공동체 회복 운동을 참고할 만하다.

'관계 만들기'는 이웃 사이의 관계,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공동체 회복을 강하게 지향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공동체로 단순하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꿈을 나누며 스스로 어울릴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활동을 할 때에도 교인들끼리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단순히 손님으로 부르기보다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함께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의 공동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반상회 같은 정부 주도의 행정기구가 아니라 주민 위주의 자발적으로 풀뿌리로부터 참여하여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나누기'는 마을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정부 중심의 지원정책이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운동의 성과가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참여자들 사이에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재정 역시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 활동을 다채롭게 실시하되,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과정을 중시하여 공동체성 발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B를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면 단시일 내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기 쉬우나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을 만들기'는 곧 '사람 만들기'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고쳐서 공동체성을 지향하도록 한다면 CB를 보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CB 전문가는 "CB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것은 CB가 특정한 절차에 따라 운동을 전개하면 정해진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B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만 작은 결실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회가 지역 공동체 운동에 참여한다면, 교회가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이 피폐해진 현대 사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망의 싹을 틔우리라는 소망으로 지역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도움받은 글>

- 곽현근, “현대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형성전략” 이종수 엮음, 「한국사회와 공동체」(서울: 다산, 2008).
- 김구, “지역공동체 역량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종수 엮음, 「한국사회와 공동체」(서울: 다산, 2008).
- 다무라 아키라, 「마을만들기의 발상」(강혜정 옮김)(서울: 소화, 2005).
- 마포구, 「살고싶은 우리동네 만드는 32가지 방법」(서울: 마포구청, 2008).
- 롤랜드 스탠, 「21세기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정용길 옮김)(서울: 이레, 2003).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지역사회조직화 실천 매뉴얼」(서울: 서울시복지재단, 2010).
- 신명호 외, “도시 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 6호(2000년 12월).
- 야마모토 마사유키,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농업과 함께하는 지역재생」(파주: 한울, 2006).
- 오하라 가즈오키,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에코뮤지엄 기행」(김현정 옮김)(서울: 아르케, 2008).
- 이명규,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과 대표사례,” 이종수 엮음, 「한국사회와 공동체」(서울: 다산, 2008).
- 정재영,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의 공공성 회복” 굿미션네트워크 엮음,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서울: 예영, 2008).
- 정재영·조성돈, 「더불어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서울: 예영, 2010).
-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서울: 아르케, 2006).



강의 02

# 도시지역 공동체 세우기

정선철 소장

사회설계연구소  
socialde@naver.com



# 사회설계연구소

## ◆연혁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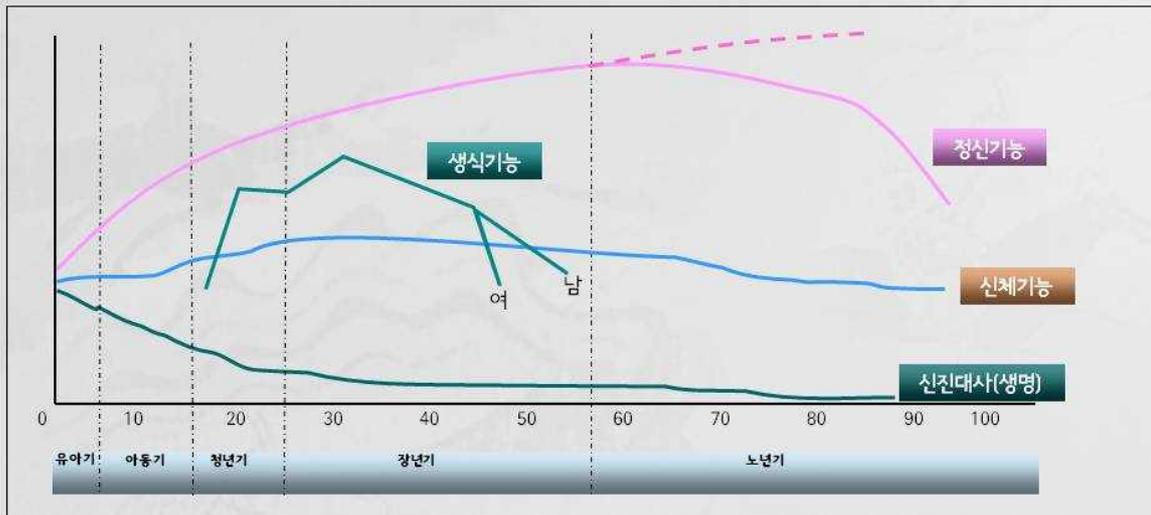
- 2005년 11월 사회설계연구소 설립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마을만들기 코스)  
2010년 9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서울시 마포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중구 특화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자문위원  
서울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서울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환경분야 전문가

## 목 차

- I . 왜 지금 도시 마을공동체인가?
- II . 21세기형 도시 마을공동체상은?
- III . 많은 시민의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1. 왜 지금 도시 마을공동체인가?

## <1-1> Best 인생을 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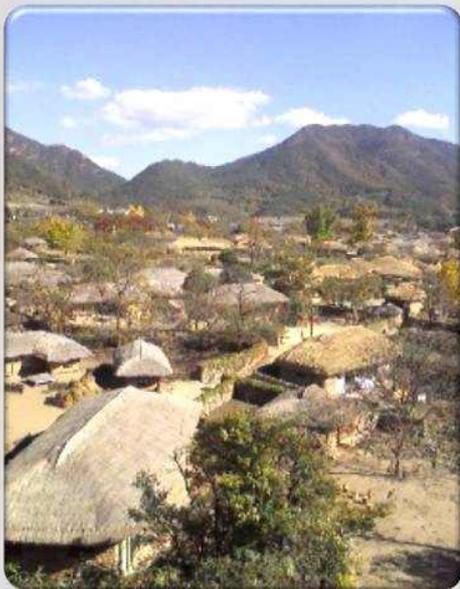
- ① 신체기능  
정신·사회적인 기능
- ② 적절히 사용  
-안 쓰면 쇠퇴  
-지나치게 쓰면 병

□ 인간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Needs)한 것은?

1. 물질적 필요 .....의식주, 가구·가전제품, 물·전기·가스 등
  - 문화·스포츠·교양·학습 등 및 기자재
2. 활동(play)욕구 .....건강·발달 등의 증진욕구 ↔ 이 지원을 위한 제반 필요
3. 환경적인 제반 필요 .....주택·블럭환경, 커뮤니티시설, 생활 속 자연환경 등

- 인간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해야.
  - 인간적인 생존욕구, 발달욕구, 노동욕구, 인간의 잠재력 발휘 및 활약, 의미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등
- 이러한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사회구성원리)
  - 정부
  - 시장 : 현재는 압도적. 하지만 시장에서 조달 불가능한 '필요'도 존재
  - 시민 : 필요한 시민의 공동사업형태로 조달

1-2 (전통) 마을공동체 일을 자원봉사+일자리 만들기 방식으로 믹스  
-옛날 마을운영 방식을 21세기형으로 재현-



- 보통 일 - 개인 및 가족
- 큰일 - 공동 협력
  - 무료봉사:자원봉사
  - 품(노동)앗이:지역화폐(S머니)
  - 품삯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 1-3 원리의 재정리

□ 원리의 전환(요코하마시립대 마을만들기 코스 논의를 중심으로)

필요원리	공급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 존재하는 한 생활에 필요한 수요는 존재. 이를 먼저 시민들이 공동 사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는 시장제일·공급 중심의 경제, 수출기업에 공용의존도 심화.</li> <li>○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수출주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순환 : 공급확대 → 고용확대 → 소비 증가 → 생활관련 확대</li> <li>- 악순환 : 세계적인 공급과잉 및 산업 공동화 → 경제침체 → 생활악화</li> </ul> </li> <li>○ 먼저 경험한 구미지역의 필요측면에 입각한 생활사회 질적 향상형 경제사회 재 구축(8%)</li> </ul>

### 1-3 원리의 재정리

□ 원리의 전환

자립·공동원리	시장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지원을 장래세대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활용</li> <li>○ 경제적 자립성이 높은 생활지역 구축. 예를 들어,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수입감소로 역내소득 역외이출 방지 및 역내 재투자, 에너지 신규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돈을 매개로 한 매매관계, 익명관계로 바뀌어 사람들의 공동자치관계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지배적 유형화</li> <li>○ 경제성장 중에도 인간관계 조기단전 지역에서부터 고립화에 따른 문제 및 병리 속출</li> <li>○ 경제후퇴시에는 재건 실마리 못 찾고 모래알 같은 사회로</li> </ul>

### 1-3 원리의 재정리

□ 원리의 전환

<b>시민·지역주도원리</b>	<b>중앙집권원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책임제 및 지역주권으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를 각 생활지역 차원에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주권으로 이행</li> <li>- Bottom up방식의 다양한 사회경제 발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복지·안전 등 현안문제 특질상 획일적인 중앙주도의 한계의 심화</li> <li>○ Top Down의 폐해</li> </ul>
<b>지구공공재·지역공공재 공급원리</b>	<b>국가공공재 공급원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적 연관속에서 지역의 자립기반 최대화</li> <li>○ 지역차원의 지구공공재 공급 및 지구 시민사회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화 시대의 공공재 공급방식의 재고</li> </ul>

### 1-4 왜 도시형 마을만들기인가

0 근대화, 도시화

- 도시가 거주형태의 일반형으로
- 도시화의 장단점
  - 편리성 - 금전을 매개로 한 익명성, 공동체 해체, 개인주의
- 도시형 공동체 회복의 어려움

0 마을 : 일상적인 생활권역

- 주민: 거주자 + 통근 및 통학자
- 마을만들기 사업주체 :
  - 주민자치위원회,
  - 비영리민간단체 등
- 마을만들기 추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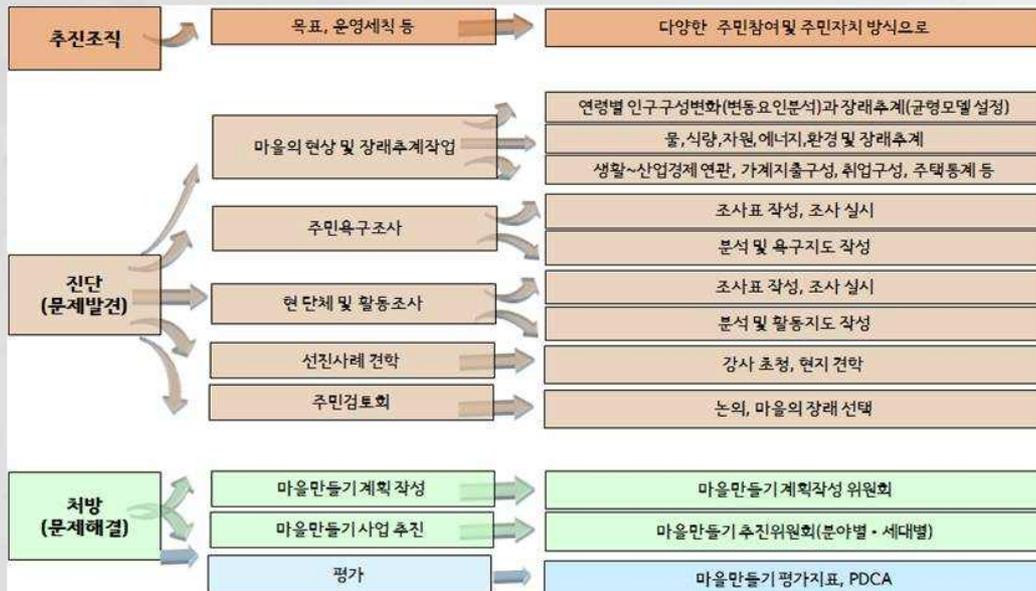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주민 스스로가 보다 살기좋은 마을환경을 만들어가는 활동

1. 주민의 건강 · 발달 · 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 · 학습 · 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외국인 주민의 지원 및 국제교류 사업
5. 방범 · 방재 사업
6.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 자원 재활용 사업
8. 도시농업 및 안전한 먹을거리 사업
9. 절수 및 빗물활용 사업
10.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사업
11. 주거환경 및 공공공간 개선사업
1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13. 마을소식지 등 마을정보의 발신 및 교류사업
14. 그 밖에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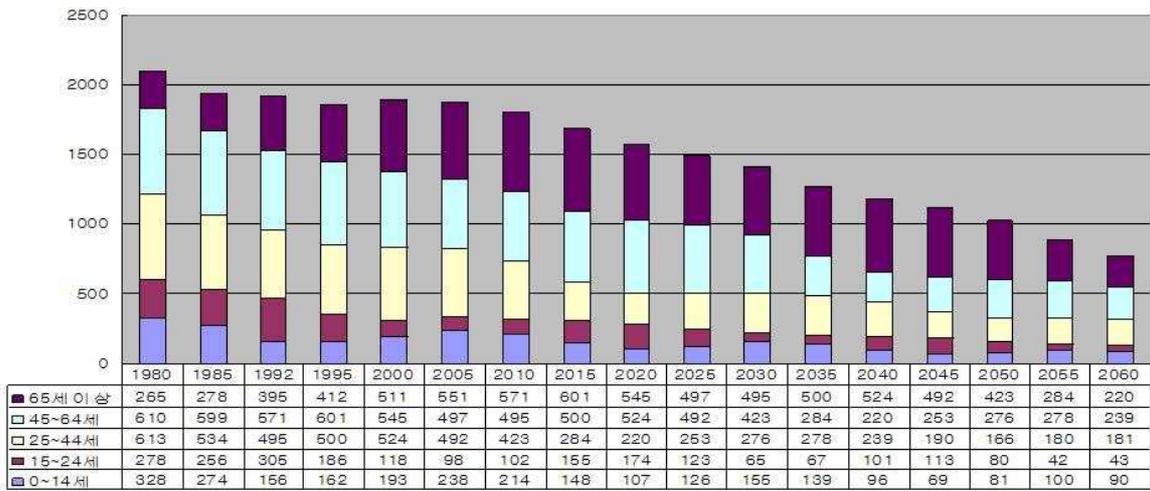
# II. 21세기형 도시 마을공동체상은?

## 1 마을의 진단 및 처방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듯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함. 이러한 작업을 안 할 경우, 어떤 마을, 사회적 기업 업종이 있는지 한없이 애매함.



## (1) 인구 및 복지 우리마을이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



마을 전체, 나아가 통별로 인구의 과거·현재·장래 추계작업(1980-2060년)

- 1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현저
  - 2 젊은세대가 어린이를 데리고 전출, 이대로 가다가는 어린이가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다
  - 3 절반 이상이 80세를 넘어 장수, 고령부부, 독거노인(특히 여성) 급증. 장래 한사람이 한사람을 부양하는 마을이 될 수 있다
- 최대원인은 주택문제(기존밀집시가지 방치, 공장직지에 원룸맨션 등)

## 우리마을 인구추세 이대로 좋은가(주민검토회)

<참고>연령별 인구균형과 상호지원관계

연령	0-24	25-44	45-64	65이상
비율	0-14 / 15-24 12.5% / 12.5% 25%	25%	25%	65-74 / 75이상 10% / 15% 25%
상호지원 관계	출생·발육·급성장기 탄생·발육·발달지원	출산기 출산전·산후지원		생활행동능력 저하 / 인생최후 자립생활활동 지원 / 인생완성 지원

### 주민검토회의 일부 소개

주제 전환: 나 우리들에게 닥친 일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 (밤낮 생활하는 마을(동통)통계처리의 효율, 전국사구 통계는 일반튼남의 일)

#### <세대간 교류 검토회>

출산율은 어떻게든 높여야

할머니: 자식이 재산, 노후 위해서도 결혼-애 둘 이상 낳아야. 초등학생: 낳겠습니다. 적령기 여성: 애 귀엽다. 결혼해 낳아 키우고 싶다. 하지만 당사자 돼봐라. 조건 안된다. 지옥이다. 시간-잡-비용.... 결혼: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결혼하여 애 낳을 수 있는 주택·마을환경 만들자

#### 고령자 마을이 되면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 죽고 싶다. 하지만 병들면 시설로 가야 한다. 젊은이: 사회적으로 연금·의료·사회비용·경제활력 저하 논의가 있다. 우리마을의 경우 한사람이 한사람을 부양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회적: 좋은 면도 생각하자. 역사상 처음으로 절반이상이 제3의 인상을 획득했다. 고령자가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는 마을환경을 정비하자. 이는 고령자 본인의 행복이고, 사회비용을 줄여 젊은이들에게도 좋다.

## (2) 환경 우리마을의 생명선(Life Line)은 안전한가

### 현상

우리마을·요코하마의 인구 급증의 배경에는 근대 이후 물·식량·자원·에너지의 역외(해외) 유입이 있어 가능했다

<물·식량·자원·에너지 100% 역외 의존>

-화석에너지: 203만t(석유환산)

-CO2 배출: 700백만t(삼림흡산 2만 그루)

-폐기물: 600백만t(소각 96%)

-식량: 300t

-물:역외 의존

### 장래 위기로인

이 마을·도시 성립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악 시나리오의 상정>

-화석에너지의 가격급등·수입불가능·고갈때 우리마을은?

-CO2 삭감의무(교토의정서 -6%)가 지역별로 강제 할당될때 우리마을은?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자원 가격급등시 우리마을은?

-식량의 안전성, 가격급등·수입불가능 때 우리마을은?

-물의 민영화, 가격급등시 우리마을은?

결론: 장래적으로 우리마을의 생명선 확보가 위협하다.  
(예시: 전후 고급 기모노와 식량을 물물교환했던 지역)

## 혁신기술을 사용하여 마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태양	바람	물(하천)	삼림	농업	사용후 자원	기대효과
	일조시간 2217.7h	평균풍속 1.1m/s	연간강수량 1313.7mm 하천연장	임목축적 m <sup>3</sup>	경지면적 : ha (밭 : ha, 논 : ha)	폐기물 : 1일 ...톤	
수소 에너지웹	태양광발전 태양열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목질 바이오	농업계 바이오	유기계 바이오	에너지 자급을 향상 이산화탄소 삭감
자원순환 이용				목재·퇴비 ·수지	신소재	유기계 : 퇴비화 광물계 : 재자원화	폐기물 감소
유기 농림수산업			수산물	버섯·골·열매 ·사료	곡물·야채·과일 ·식육		유기농업 확충
물순환이용			빗물·생활/농업 용수	그린댐	그린댐	폐수→중수이용	폐수 감소
자연기능 재생			영양순환	영양순환			자연환경 기능 향상
			토사운반	토양생성	토양보호		
			자연정화	자연정화			
			기후안정	기후안정	기후안정		

### (3) 일자리 - 우리마을의 활동·취업기반은 이대로 좋은가?

- 현상: 낮에는 텅빈 마을(주민의 취업·활동기반이 없어 마을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
- 장래: 농어촌 마을 못지 않게 마을에 취업·활동기반 확보해야(선진사례 등 참고할 때 충분 가능)

개인생활		마을 만들기 활동		
생활시간	생활구성	자원봉사	지역통화	사회적 기업 (Community Business)
<필수생활시간> 10시간 53분	수입(100%)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직원
수면 7시간 48분	소비(78.1%)	녹색소비	지역화폐	녹색소비 지역통화사업
식사 1시간 47분	주거비(6.1%)	주택·마을시설정비	주택·마을시설정비	주거환경 공공시설 개선사업
외요/건강관리 1시간 18분	의료비(4.1%)	자원순환	자원순환	자원순환사업
	식량비(17.5%)	산지직송,급배식활동	급배식활동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식품안전,도농교류
<의무생활시간> 7시간 56분	물·광열(4.2%)	물순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물순환	빗물활용,하천정화,신재생에너지보급,녹화,동네산보전사업
일 3시간 48분	가사용품비(2.2%)	자원순환	자원순환	자원순환, 바이오매스 사업
가사노동 2시간 10분	보건·의료비(2.3%)	건강증진활동	건강증진활동	고령자·장애인 지원, 보건·의료
학습 11분	교육비(5.5%)	발달지원활동	발달지원활동	육아·청소년지원, 평생학습사업
이동 1시간 47분	교양·오락비(7.9%)	문화·스포츠활동	문화·스포츠활동	문화·예술 스포츠사업
<여가생활시간> 5시간 11분	교제비(5.1%)	주민교류활동	주민교류활동	주민교류·지역교통사업
미디어이용 2시간 20분	통신·교통(10.7%)	지역정보·교통활동	지역정보활동	지역정보, 지역교통사업
교제 47분	기타(12.5%)	안전한·마을만들기	안전한·마을만들기	방법·방재사업
종교/문화/스포츠 46분	저축(16.0%)	투자, 기금	투자, 기금	커뮤니티뱅크, 펀드사업
취미/독서/유희 44분	세금·사회보호(21.9%)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자원봉사조례	사회적기업 기본조례

사회설계연구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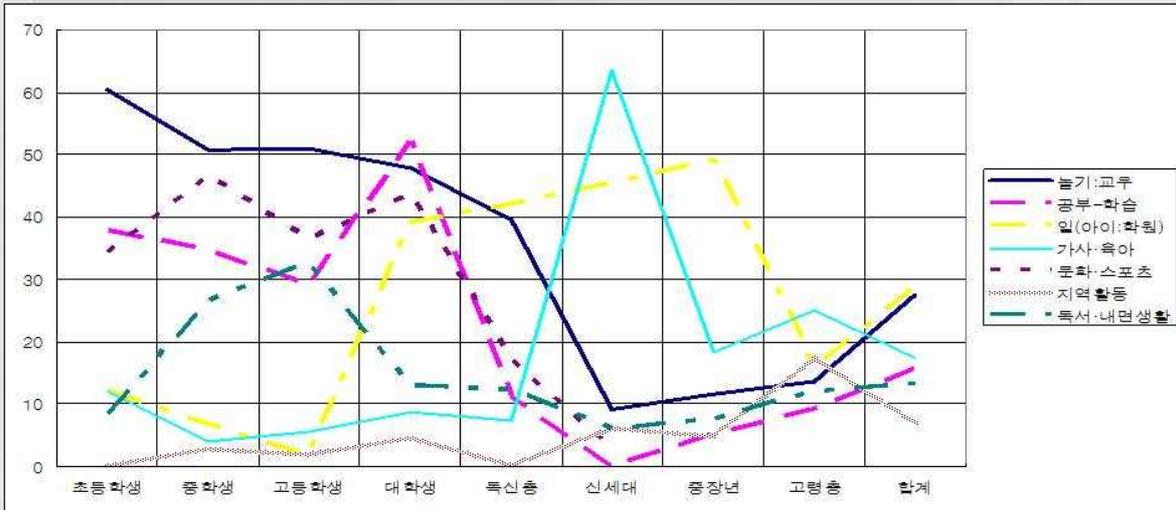
### (4) 주민욕구조사

#### ① 전세대(초등학생-고령자, 713명) 대상의 설문조사

#### ② 설문조사표(주요 내용 예시)

- 가족형태/ 주택형태
- 매일 생활시간 구성은,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생활영역은(일, 가정, 지역..), 토요일은 무엇을 하는가,
- 취업특성, 근무지는 어디, 매일 귀가 시간은, 귀가 후에 하는 일은
- 친구는 몇 명 정도, 어떤 관계의 친구인가(학교,일지외관계..), 친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하고 지내는가
- 지역활동에 참가하는가, 어떤 활동에
- 매일 생활 속에서 즐거운 일, 싫은 일, 최근의 컨디션은, 당신의 성격은
- 이 1년간 좋았던 일, 나빴던 일
- 지금 가장하고 싶은 일
- 장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돈,일,활약,문화,내면...), 장래 하고 싶은 일,
- 결혼해서 가정 갖을 것인가, 어린이는 몇 명, 현 육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어린이로 키우고 싶은가, 자식 이 고향에 남길 바라는가
- 부모와 동거할 것인가, 부모가 병들면 어떻게, 병든 부모를 모실때 가장 힘든 일은, 보건/수발/재택서비스 등에 대한 희망은
- 평소 건강관리법은, 자기가 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자식과 동거 희망하는가
- 몇 세까지 살고 싶은가
- 급격한 고령화에 대해 어떤 생각,
-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어떤 생각
- 우리 마을의 좋은 점, 나쁜 점, 거주 년수, 장래 계속 이 마을에 살고 싶은 생각은(이유도), 마을에 새로 생겨났으면 하는 활동은, 그 활동에 참가 의향은, 참가할 경우 비용 부담은

### <욕구분석 예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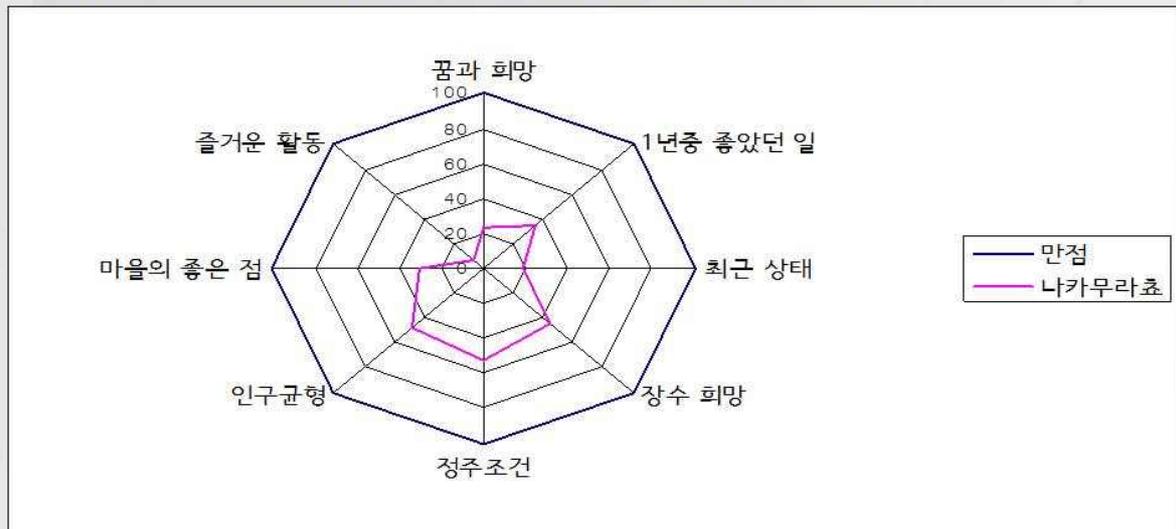
#### 1 5대 생활영역과 생활설계

- ① 가정생활, ② 직장(학교)생활, ③ 지역활동생활, ④ 문화·사회활동생활, ⑤ 내적인 정신생활 (대 구분)
- 어떻게 생활영역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생활이 될까?(연령별에 따른 중점 생활영역 및 타영역의 선택)

#### 2 현재는 '좁고 빈곤한 생활'이 압도적: 일면 특화형(회사인간, 학교인간) → 부과된 업무와 학업에 시간에너지 집중

→ 그러나 불완전 연소 → 이틀일수록 1년중 좋은 일 비율 낮음 → 장기적 시점, 특히 제3의 인생단계로 가면 치명적

### 욕구지도(마을주민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



#### 1 다양한 욕구조사 결과를 하나의 욕구지도로 재구성(항목)

- ① 꿈과 희망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다. ② 그 결과 1년간 좋았던 일도 많다. ③ 지역에 즐거운 활동 많기 때문이다. ④ 그래서 매일도 충실하다.
- ⑤ 그래서 우리마을이 좋다. ⑥(심신 건강) 장수 희망도. ⑦ 정주희망도 높아진다(사회조건). ⑧(이 중 결과가) 인구균형으로 귀착된다.
- + ⑨ 많은 사람들이 '인생계획'을 가지고 산다.

#### 2 현재의 욕구 충족도는

Best: 전원이 100%, 그러나 현재 욕구충족 수준은 10-50% 수준. 불만 합창단  
담당 공무원의 소감: 설마 이렇게 낮을 줄이야!

(5) 현 단체·활동조사(주민의 욕구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하는가?)



(6) 마을의 장래를 선택하자(주민 검토회에서 '선택지(예시)'의 검토)

**Case 1 아무 것도 안한다(현상 연장)**

- 1-1. 뒤를 이을 어린이를 낳지 못할 마을이 될 수도 있다  
→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여성의 사회진출+해외 노동력으로 충당하자  
→ 인구감소가 지구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좋다
- 1-2. 2-3할의 고령자 중에 병약자·치매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고령자들에게 단념하게 하자.  
    싫다(다음 Case로 이동)

**Case 2 고령자의 복지기반을 정비한다(일부 개혁)**

- 2-1. 고령자는 건강하게 좋은 인생을 마칠 수 있어 행복하다
- 2-2. 그러나 후계세대 수는 더욱 줄기 때문에 세금·사회보장 부담은 더욱 커져 후계세대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난점이 있다  
→ 인내를 강요해서라도 부담하게 하자  
→ 부담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 2-3. 오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는 무수히 많다. 그들의 노동력으로 대체하자.  
→ 외국인 받아들일 태세를 최대한 정비하자(C와 50로 100로)  
→ 조건정비 안 해도 줄 사람은 많다·약간의 마찰 해외비판은 듣고 흘리자  
    싫다(젊은 세대가 가렵다. 다음 Case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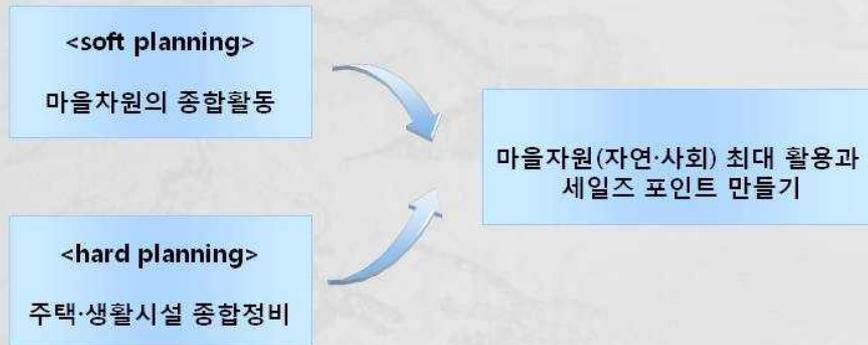
**Case 3 마을의 생활기반을 근본적으로 정비하자(근본 개혁)**

- 3-1. 출생률 회복과 고령자 복지 증진이 가능한 근본적인 생활개선을 '21C 환경친화형 방식'으로 정비한다.  
→ 이것은 아주 힘든 역사적인 도약이지만 일부러 도전해가자.  
→ 그렇게 무리하다가는 남는 것은 고생뿐이다. 필요성은 알지만 할 수 없다.
- 3-2 출생률 회복으로 연령별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의 상당 기간(30년)은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충당하자  
→ 외국인을 받아들일 조건을 3-1과 연계하여 정비하자.  
→ 이를 통해 지구시대에 걸맞게 안으로부터 국제화와 밖으로의 국제공헌도 추진하여 내외 양면에서 플러스로 활용하자.

## (7) 마을장기종합계획

**<목표상>**  
유아에서 고령자가까지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마을

이것이 가능한 필요충분 조건은?  
소요기간: 약 10-15년으로 설정(환경·복지문제 등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빠를수록 좋다)



## 추진방식 1: 야구의 타순처럼. 분야별 계획과 우선 순위 결정 및 추진

1. 인간복지계획  
건강·발달·복지증진 부문, 교양·학습·문화 부문, 예술·스포츠 부문
2. 자연재생계획  
숲·빛물·시민농원·재활용·대체에너지 부문
3. 주택·마을시설 재정비 계획  
환경·복지 일체형, 안전·쾌적
4. 산업·일자리 계획  
신수요 개발, 산지직송 연대, 각종 일자리 개발
5. 국제협력 계획

### Ⅲ. 많은 시민의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무료+품앗이+품삯 방식의 믹스

개인생활		마을만들기 활동		
생활시간	생활구성	무료	품앗이	품삯(Community Business)
<필수생활시간> 10시간 53분	수입(100%)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직원
수면 7시간 48분	소비(78.1%)	녹색소비	지역화폐	녹색소비 지역통화사업
식사 1시간 47분	주거비(6.1%)	주택·마을시설 정비	주택·마을시설 정비	주거환경·공공시설 개선사업
외모/건강관리 1시간 18분	의복비(4.1%)	자원순환	자원순환	자원순환사업
	식량비(17.5%)	산지직송, 급배식활동	급배식활동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식품안전, 도농교류
<의무생활시간> 7시간 56분	물·광열(4.2%)	물순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물순환	빗물활용, 하천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화, 동네산보전사업
일 3시간 48분	가사용품비(2.2%)	자원순환	자원순환	자원순환, 바이오매스 사업
가사노동 2시간 10분	보건의료비(2.3%)	건강증진활동	건강증진활동	고령자·장애인 지원, 보건·의료
학습 11분	교육비(5.5%)	발달지원활동	발달지원활동	육아·청소년지원, 평생학습 사업
이동 1시간 47분	교양오락비(7.9%)	문화·스포츠활동	문화·스포츠활동	문화·예술·스포츠 사업
<여가생활시간> 5시간 11분	교제비(5.1%)	주민교류활동	주민교류활동	주민교류·관광·국제교류사업
미디어이용 2시간 20분	통신교통(10.7%)	지역정보·교통활동	지역정보활동	지역정보, 지역교통사업
교제 47분	기타(12.5%)	안전한 마을만들기	안전한 마을만들기	방범·방재사업
종교/문화/스포츠 46분	저축(16.9%)	투자·기금	투자·기금	커뮤니티뱅크·펀드사업
취미/독서/유희 44분	세금·사회보험(21.9%)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자원봉사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 종래 시민사회(NPO)의 성과 및 한계

○ 외형적(수,인원,금액 등)으로는 성장

○ 특정분야(복지사업계열 등)에 치중, 반면 주택 및 시가지 정비, Community Base 분야 등은 약체

○ 일반적인 지적은 자금력 및 연구조사·정책·실천능력부족(비판·요구형)  
→ 시민적인 제기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보조금·조성금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행정의 하청기관화. → 이념·목표·정책의 자립성 상  
실이 인적·자금적 자립기반의 악화로 이어짐(사이버 NPO론)

○ NPO의 행정의존형

싱크탱크의 기업의존형

대학의 책임방기

□ 사회적기업이 시민사회 형성의 새로운 주축으로

○ 사회적기업의 포인트

- 시민들의 공통적인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노력과 출자 등을 통해 사업화하여 서로의 필요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사업체.

- 동시에 이를 통하여 서로를 재조직화·재공동화시켜 가는 과정

□ (준)공익성

- 자주적인 사업전개로 시장의 한계(돈의 보유여부), 정부의 한계(과반수 등)를 보완

- 절실한 수요가 실현되지 않아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잃게 된다면 사회보장·복지예산증가, 사회병리로 범죄 다발 시 막대한 손실초래.

- 이를 사회적기업·공동사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준공익적인 성격이 있어 공공자금 지원의 근거가 됨. (cf, %조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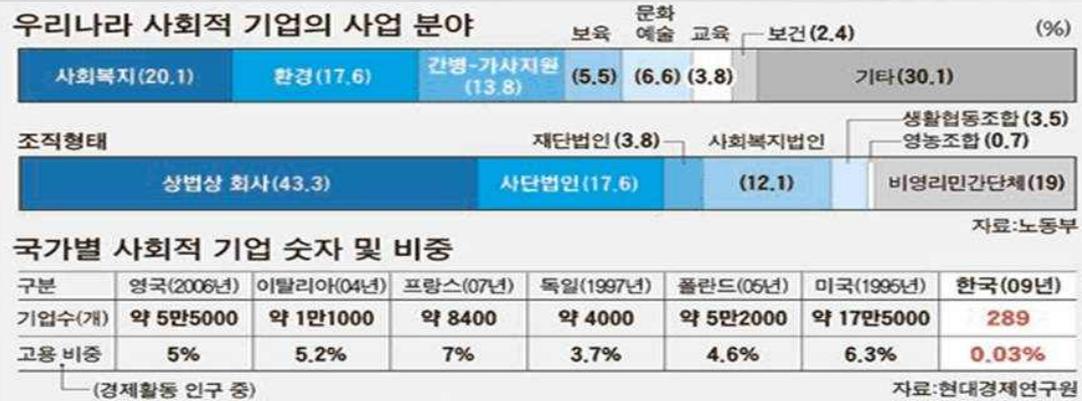
□ 생활사회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

- 공공사업에 의한 수요창출로 이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 왜곡

- 시장제일·공급중심 경제의 수급불균형의 문제

- 상기를 본래의 사회적 필요에 알맞은 적절한 경제사회구조로 전환

□ 사업적기업이 전체고용의 10%정도는 흡수해야



출처 : 중앙일보 2011.01.11일자  
 “친서민해법, 사회적기업에서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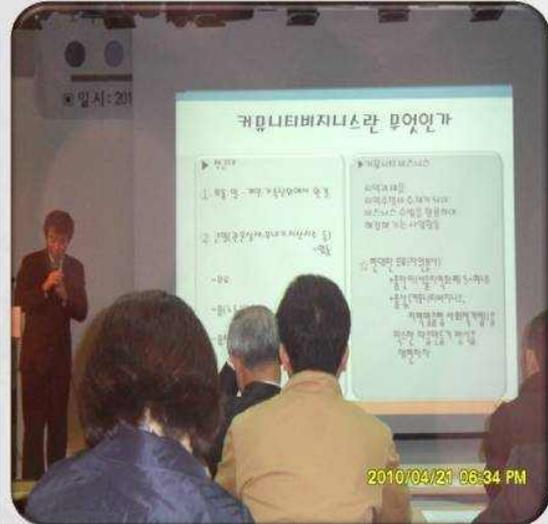
## 서울시 목표

- 2012년까지 서울형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 2만8천 개 일자리 창출 (은평구 9개, 마포구 44개)

# 국내외 선진사례에서 힌트를 얻는다

- Leadership by Examp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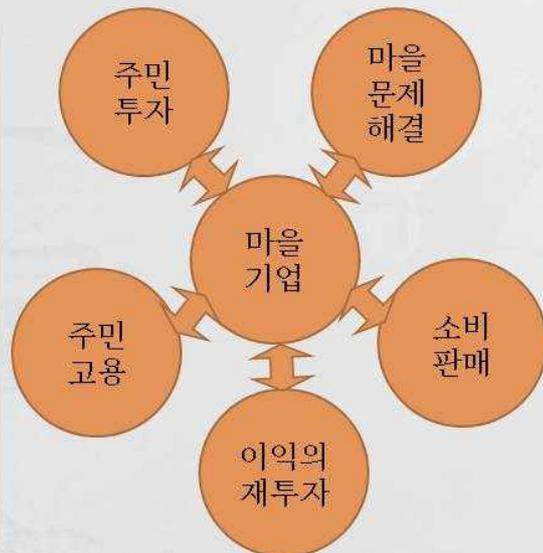
<사례1> 주민자치위원회의 서울형사회적기업 인증사업  
-신수동주민자치위원회+사회설계연구소의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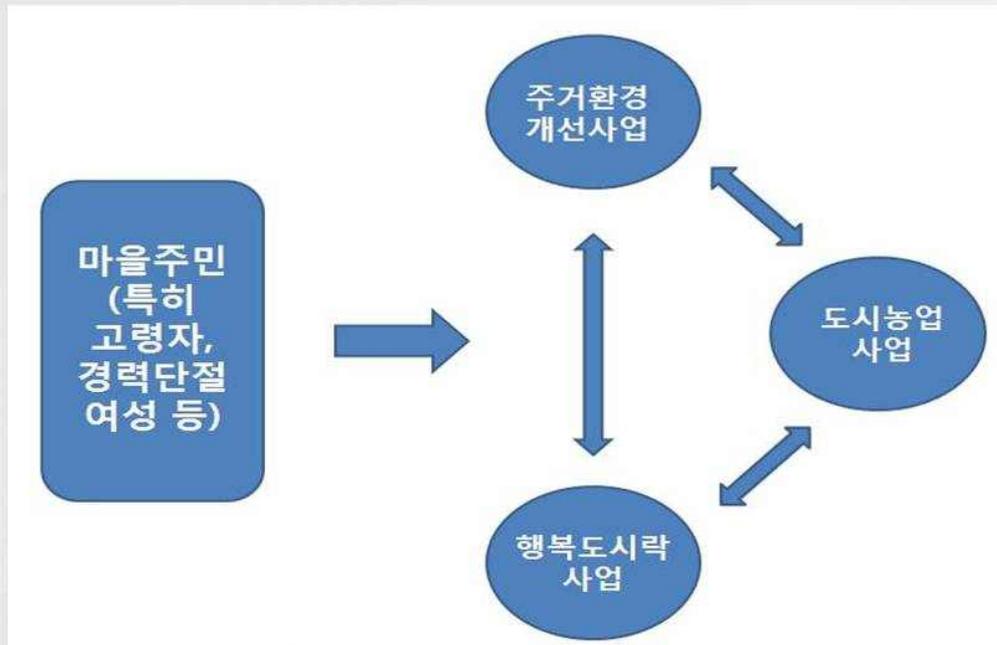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자원봉사 한계를 극복하자. 마을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 신수동(인구 2만2천명)은 노후주택이 많고 취약계층(986명) 및 고령자(1,375명)가 다수 존재해 복지·환경·주거정비·일자리 등에 걸쳐 마을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이러한 마을문제를 마을주민이 앞장서 해결하면서 마을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신수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노동·소비·판매하는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임.



## 사업 내용



## ① 도시텃밭

- 신수동의 유휴공간(베란다·옥상·공터·학교 등)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고추·토마토·곰취나물 등 유기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



## ② 친환경 콩나물 및 콩류제품

- 희망가구를 모집하여 국산콩 및 재배용기를 대여하여 가정에서 유기농 콩나물을 재배한 후 집하하여 판매.
- 두부제조기를 설치하여 국산콩을 사용한 유기농 두부·순두부·비지돈 가스를 제조·판매.



## ④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

- 인근 어린이 집·초·중·고·대학생들이 도시의 가까운 마을에서 쉽게 농사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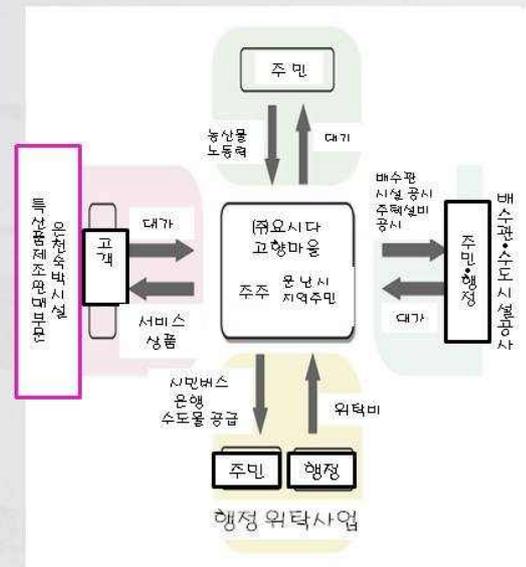
## ⑤ 신수 5일장

-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야채·콩나물·두부·비지돈가스) 및 도농직거래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을장터를 열어 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 주민이 주주(株主). 주민참가형 마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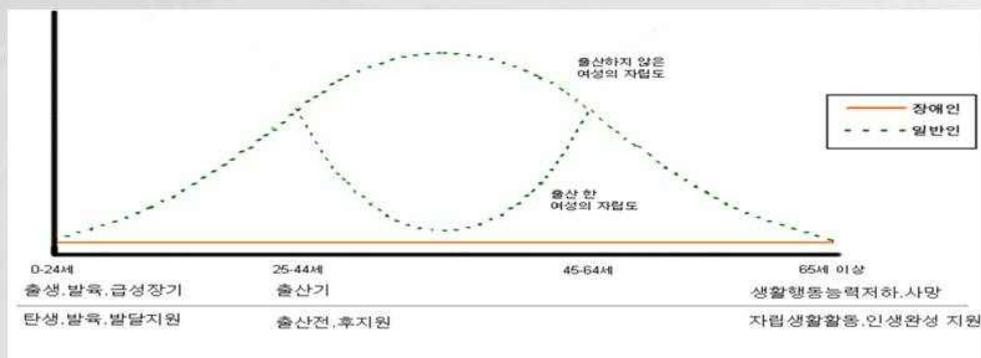
단체명	(주) 요시다 고향마을
소재지	시마네현 운난(雲南)시
활동 분야	지역산업 진흥
사업 개요	인구과소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마을의 주민과 행정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는 지역농가와 계약하여 재배한 야채나 쌀을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식품가공을 하고 있다. 특히 '계란 덧밥'은 전용 간장의 개발, 심포지엄의 개최 등, 핵심사업으로 성장.
특징	·주민이 주주라는 협력 구조(요시다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 확대) ·철저한 질 높은 상품 만들기(수백회에 걸친 시식) ·조미료 무첨가·안전·안심에 대한 집념



# 복지 분야

- ◆ 지역주민의 건강·발달·복지를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라이프사이클과 상호지원  
-기초사실의 공유, 인생은 상부상조가 필요 불가결하다-



- <전 인생 시점에서 보면, 누구나 지원 받고 지원하면서 인생을 전개한다>
- (지원받는) 비 자립 시기 : 유아 · 임신부 · 후기고령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 \*장애인(선천성 · 후천성)
- (지원하는) 자립 시기 : □ 돈을 벌어 생활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 구입
- 가사(출산, 육아, 수발 등), 자원봉사

# 임신·출산·육아

- ▶ 임신 : 임신부 지원
- ▶ 출산 : 산후조리, 산후용품 렌탈
- ▶ 육아 : 가정육아교사(베이비시터) 양성·파견(방문교육, 놀이방)  
지역밀착 육아정보사이트, 육아정보지  
병아(病兒) 보육사업

# 출장산후관리 및 베이비시터

##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인천 중·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산후관리·베이비시터 사업 외에 저소득 가정 방문 학습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및 교육 뿐만 아니라 상조회를 조직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등 우리 지역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잠 출장 산후관리**  
엄마와 아기의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 성심 성의껏 함께합니다.

**산후관리사가 하는 일**

산모관리 ▶



신생아관리 ▶



큰아이 돌보기 ▶



산후제조, 식사준비, 신생아 발달 마사지 등 산후조리를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베이비시터라**

## 영유아 돌봄서비스 - 원주YMCA 아가야-



### 서비스 내용

- 찾아가는 보육서비스(파견)
-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공간)  
유아 방학프로그램 오순도순 놀이터:  
레고, 오르다, 창의놀이, 미술활동, 요리활동 등
- 기관 놀이교사 파견 및 교사파견 서비스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파견 서비스
- 가정육아교사 교육 및 일자리 지원
- 아람드리 작은도서관 운영
- 녹색가게 운영

## 아동·청소년·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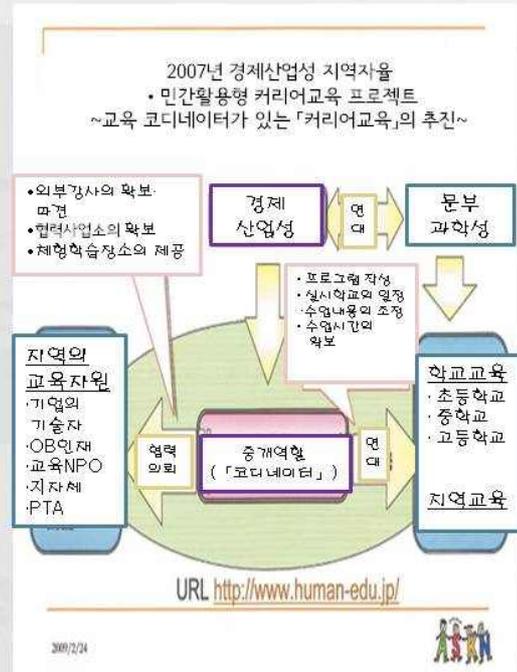
- ▶ 교육:방과후 교실  
방문학습지도 서비스  
체험학습(역사/자연/문화/도농교류/직인..)  
수학여행프로그램  
인성+Social Skill교육
- ▶ 자립지원: 은둔형외톨이의 공간과 일  
니트의 취업기초훈련
- ▶ 활약: 대학생들의 IT서포트 사업

## 학교에 시민 참가형 커리어교육 물결을

단체명	NPO법인 ask-net
소재지	아이치현 나고야(名古屋)시
활동 분야	교육·인재육성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른과의 만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람을 시민강사로 학교에 코디네이터하는 '시민강사 네바'사업</li> <li>-학교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실시·검증을 지원하는 사업</li> <li>-출장강좌와 자원활동(교육 CSR), 기업과 대학생이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제공</li> <li>-기타 교육 이벤트 지원 및 정책제언 등, 교육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을 끌어들이는 교육이벤트 '어른세미나'를 실시하여 지역 교육자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전체의 교육능력 향상을 도모</li> <li>-지역의 교육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의 커리어 교육을 코디네이터</li> <li>-기업에 교육CSR 활동을 촉구하고, 학교·기업 쌍방향에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확대</li> <li>-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제언활동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와 제휴</li> </ul>



사회설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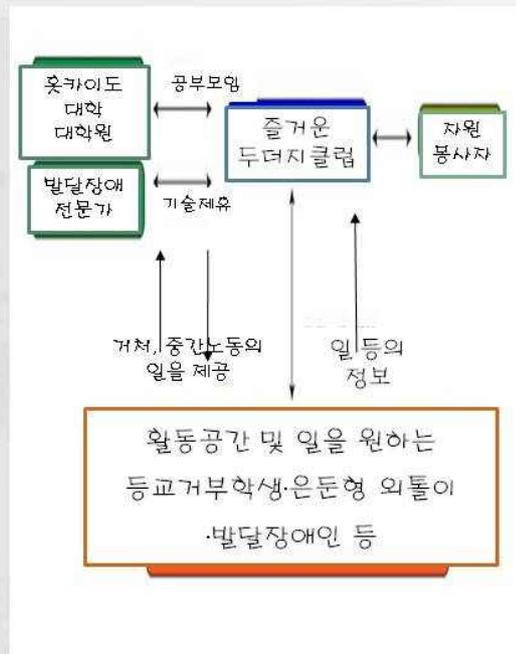


## 은둔형 외톨이들이 모이는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와 연결시켜 자립의 길을 열어준다

단체명	NPO법인 즐거운 두더지 클럽
소재지	홋카이도 삿포로(札幌)시
활동 분야	교육·인재육성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교거부학생, 은둔형 외톨이들이 모이는 찻집 운영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IT 모임을 운영.</li> <li>-IT모임은 기업으로부터 홈페이지 작성의 수주 등, IT기술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일을 받아 자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노동과 복지의 중간에서 중간노동(中間勞動)의 컨셉을 실현</li> <li>-등교거부학생, 은둔형 외톨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고용방법(자택에서도 취업 가능한 IT관련 일)과 공간을 제공(두더지 클럽)</li> <li>-일하고 있는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각자의 자기 페이스에 맞는 취업화를 지원</li> </ul>



사회설계연구소



# 여성

▶ 활약: 레스토랑, 찻집, 마을만들기

▶ 지원: 미용직업훈련...

## 여성의 입장에서 마을만들기를 제안하고 실천한다

단체명	오야오리(綾織)의 꿈을 이루게 하는 여성의 모임
소재지	이와테현 토노(遠野)시
활동 분야	지역 활성화-마을 만들기
사업 개요	-차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동을 전개. 길의 역(Road Station) '바람의 언덕'에 농가 레스토랑을 열고, 현지의 다양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고향의 맛을 제공. -지역 전통직물을 전승하는 '꿈을 이루는 면양의 모임', 각지의 냄비요리를 모은 '이와테 냄비요리 서밋' 등 어린이 및 다른 단체와 연계한 즐거운 활동도 전개.
특징	-여성의 입장에서 마을만들기의 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하는 의욕과 노하우 -차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향토사랑을 바탕으로 한 발상과 행동 -행정·농협·농업관계자 등 관계기관과 폭넓은 제휴



# 다문화가정

- ▶ 다문화가정 : 통역지원, 한국어 교실, 상담, 다문화어린이집/학교 이주여성(천연비누/천연삼푸)
- ▶ 외국인노동자 : 의료서비스, 상담
- ▶ 공정무역

## 통역지원사업 및 나눔인력사업-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 ● 원어민 어학강사 사업

영어·일어·중국어 등 이주외국인 강사 파견 (각 어린이집, 유치원)

- ▶ 무료 : 저소득 자녀, 외국인 자녀
- ▶ 유료 : 원어민 외국어 강사 파트타임, 중상층, 지역주민



### ● 원어민 통역지원 사업 공공기관 및 사기업협약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목포경찰서, 목포 해양경찰서, 병원 및 관광안내소)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인 가정 통역지원 업무
- ▶ 무료 : 저소득 계층 또는 이주 외국인, 다문화가정

## 새터민에게 외식프랜차이즈 교육·취업·창업을 지원한다

단체명	(주)향기로운외식세상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활동 분야	외식프랜차이즈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식직영점 칭 프랜차이즈 가맹사업</li> <li>-외식창업교육사업 새터민,취약계층,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식사업의 개요, 매장을 활용한 실습, 창업실무 등을 교육사업 전개</li> <li>-프랜차이즈점의 취업·창업 지원사업 교육받은 새터민 등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혹은 유관외식업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프랜차이즈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지원 및 AS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터민 및 외식사업 희망자 등의 일자리 창출 (새터민 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li> <li>· 새터민들의 지역사회정착에 기여 (새터민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는데 기여)</li> </ul>

##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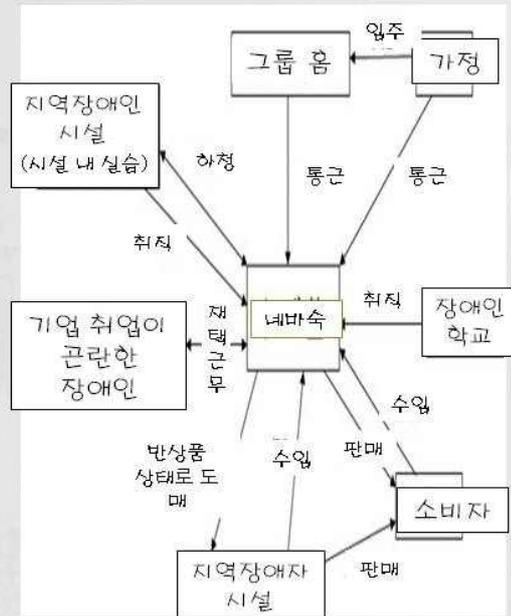
- ▶ 복지서비스: 교육, 활동보조 서비스...
- ▶ 취업지원: IT재택, 기업
- ▶ 생산,판매: 두부,두유, 비누, 벽돌, 자활농장, 양말, 화장지, 칫솔, 베이커리...

## 장애인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전국 브랜드의 비누

단체명	유한회사 네바속(藝)
소재지	나가노현 사쿠(佐久)시
사업 개요	- '백설의 시' 등 150종류 이상의 특징 있는 무첨가제 비누를 제조·판매. 거의 모든 제조 공정을 장애인이 담당. - '섞으면 비누' 등의 비누제조 구조 판매와 장애인을 위한 그룹 홈을 운영.
특징	- 총 매출은 2억엔. - 대기업 비누 메이커와 명확한 차별화(수제품의 느낌, 무첨가제, 독특한 상품명) - 장애인의 개성을 활용한 비누 제조 - 자신감과 자부심 회복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육성 방침



사회설계연구소



## 고령자

- ▶ 활약, 생애현역: 취약계층 지원, 업무위탁사업
- ▶ 건강증진: 운동, 식사, 여가
- ▶ 수발, 돌보미서비스: 가정수발, 간병, 전문요양, 방문 간호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판매  
차량이동 지원

#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실버

단체명	(주)시니어인력뱅크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활동 분야	고령자 보안당직자 파견사업
사업 개요	<input type="checkbox"/> 학교보안당직자파견 사업 -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안당직자파견 <input type="checkbox"/> 깔고미청소단 - 학교 및 상가청소원 파견 - 청소대행사업 <input type="checkbox"/> 교육사업 - 근무자직무교육 - 참여자주체역량강화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지역공공기관연계 일자리창출사업 - '사회화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시흥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사업지원체결 등
특징	·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노인복지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준·고령자 고용창출 전문기관

**인력뱅크** (주)시흥시니어클럽을 통해 학교 경비원, 공공주차장관리원 파견사업 부천, 시흥, 안산지역에서 학교 경비원, 주차관리원으로 파견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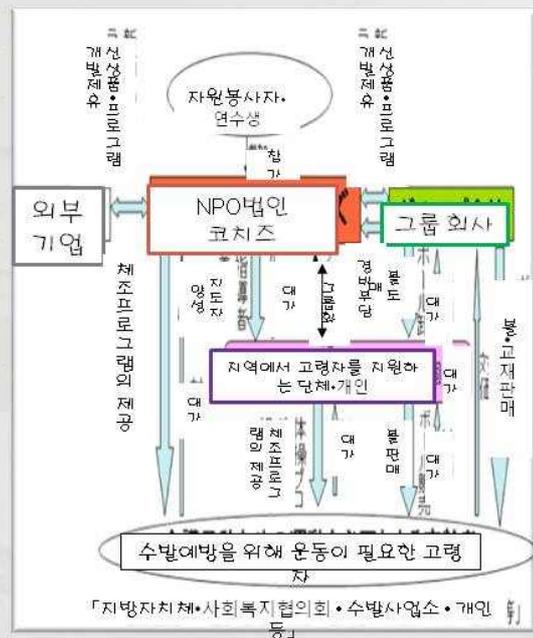
- \* 고 수입 창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 취업 알선을 통해 활동자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드립니다.

- 활동지역: 시흥, 안산, 부천 소재 초·중·고등학교, 공공주차장 관리소  
 - 근무시간: 격일/ 일 8시간 근무 (파견시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여인원: 40명  
 - 보수수준: 월 800,000원

어르신들의 경험과 성실함으로 주변중소기업의 소품백, 화장품게이스, 자동차 부품용 단순 일거리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공동작업장(행복시장)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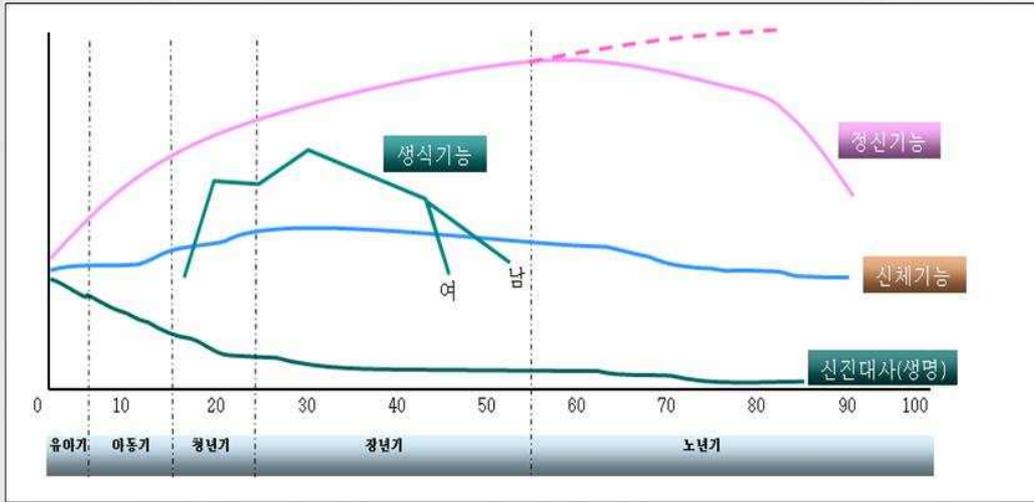
#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체조교실. 고령자 수발예방의 처방전

단체명	NPO법인 코치즈
소재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広島)시
활동 분야	보건·의료·복지
사업 개요	-그룹 회사가 제조한 공을 이용해 고령자 수발예방을 위한 체조(힘내 체조) 교실을 개최. ·'힘내 체조' 강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및 보급 활동을 전개(체조강사로 전(前) 복지중년층을 기용한 것으로도 유명).
특징	·행정에 대한 제안능력(복지중년의 강생) ·고령자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조프로그램의 개발 ·제공 서비스 관련 상품(물) 판매, 체조의 자격화를 통한 수익원의 확보



# 환경 분야

## 인간의 생명과 지구환경



- 1) 생명유지에 1일 물 2kg, 식량 2kg, 공기 20kg, 자원, 에너지의 종합적인 확보가 필요.
- 2) 인공생태계 실험 결과. 자연생태계가 1차 생산자(자연은 태양광 및 지구 내부열을 동력원으로 식량·자원·에너지를 생산하고, 영양순환·자연정화·기후조절 등의 서비스를 제공). 인간은 이 46억 년간 축적된 지구 자연자원을 인간의 필요품으로 바꾸는 생산 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
- 3) 지구자연의 건강이 인간생명 유지의 필수조건 3위일체, 사용

# 저탄소 녹색 사회의 기본방향

## 지구 스케일의 인간발달

<p>①인 구 ↔ ②물 ↔ ③식 량 ↔</p> <p>↓</p> <p>억제* 지속가능형 식량증산</p> <p>/② 용수(수량+수질)</p> <p>↓ 농지 우선확보</p> <p>식문화개혁 개발</p> <p>①주택 · 도시컴팩트화</p>	<p>④자원 ·에너지 ⑤자연생태계</p> <p>3R ④순환형 생산</p> <p>~사회로 전환 보전·재생</p> <p>에너지효율 최대화 ⑤녹화 ·</p> <p>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해양환경 재생,</p> <p>제로에미션, 오염제거, 지구온난화 방</p> <p>지</p>	<p>⑥경 제</p> <p>지속가능한 경제 발전</p> <p>방식으로 전환</p> <p>[⑤메인/ ①유지]</p> <p>당면2~30년 ① ② ③ ④ ⑤</p> <p>전환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유지</p> <p>~경제발전 방식을 전환</p>
---	---	--

# 에너지

##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ESCO)

##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풀·나무 계열 바이오매스 에너지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연료(BDF)  
태양광발전(햇님펀드)

## 제주 화순리 주민주식회사인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

### □ 지역과제

- 마을 공동소유 중이던 부지를 매매해 발생한 수익금 17억원의 투자처 마련이 마을 공동의 과제  
➔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여 공동의 수익을 창출

### □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

- 개요
  - 사업 추진을 위해 '08.4 (사)화순리 마을회 출범, 5월부터 발전소 가동
    - ※ 사단법인 마을회가 주식회사의 99%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
  - 부지 3,000평 규모에 1.2호기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소 운영
- 설립과정
  - 임시총회 7번, 10여 차례의 개발위원회 회의, 외부 교수 및 전문가 초청,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주민간 합의를 도출
- 현황
  - 일부 유지 보수 비용 외 추가적인 투자나 경상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 및 기본 관리는 마을청년회가 위탁 운영
    - ※ 연간 매출 1.2억 ~ 1.5억원 발생(대부분이 순이익),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
  - 회계 업무를 위해 외부 회계사를 고용하여 업무 처리
  - 향후 장학사업과 보육시설 또는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복지 사업에 진출할 예정

### □ 효과/시사점

- 마을 공동의 자금을 지역주민의 토의와 협의에 의해 생산적 사업에 투자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 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으로 농어촌에 적합한 모델

# 자원

- ▶ 지상광산화 사업  
잡병,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전, 의류, 폐목재 등  
의 수집·분류·판매
- ▶ 리유스 사업  
리유스컵  
폐어망

## 컴퓨터 재활용- (주)컴윈



**일자리 창출, 재활용품 처리, 자원 순환형 사회건설!!**

(주)컴윈은 기업의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하지 않으며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주)컴윈의 자산은 사회적 투자로 이루어 졌으며 일하는 분들도 새로운 희망을 품은 사회 소외계층이었습니다. 2004년 40,000대의 컴퓨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55,000대의 컴퓨터를 처리함으로써 삼성전자 및 HP와 폐전산기기 처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 주요 사업내용

- PC, 핸드폰, 프린터, 복사기 등 전기 전자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 사업장폐기물(비철, 고철, 재활용 스크랩) 재활용
- 가중 및 사회환원 사업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정착화

## 지역기업·J리그팀과 제휴하여 리유스컵 사업을 전개

단체명	NPO법인 스페이스 후
소재지	야마나시현 마스호초(増穂町)
활동 분야	자원 재활용
사업 개요	<p>- '일회용 식기 NO!' 이벤트시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리유스 식기 렌탈사업'(빌린다→사용한다→더럽혀진 채 돌려준다)을 전개하여, 쓰레기를 내지 않는 에코 이벤트를 지원.</p> <p>- 축구 J리그 현지팀(Ventforet Kofu)이 홈게임에서 리유스컵을 도입하고, 영화관에서도 도입.</p> <p>- 리유스 식기 이용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원거리 이송에 의한 환경폐해·고비용 등을 막기 위해, 전국 네트워크 '리유스 식기 후넷'을 결성하여 보급확대와 상호 경영기반 강화를 도모.</p> <p>- 비수익부문으로 '유채꽃 프로젝트'를 행정과 협동으로 추진하여, 유채기름짜기 체험학습과 폐유를 정제한 BDF를 공용차에 제공.</p> <p>- 환경 효과                  ① 폐기를 감축량: 리유스 식기 렌탈수 40만개/년(=연간 일회용식기 감축량) × 일회용 식기중량 10 g/개=연간 폐기를 삭감량 4 t/년                  ② CO2 감축 효과: 리유스 식기 연간 렌탈수 40만개/년 × CO2 감축량 60 g/개=24t/개</p>



## 지역활성화

-마을·지역을 살기 좋게 가꾸면서 수익을 창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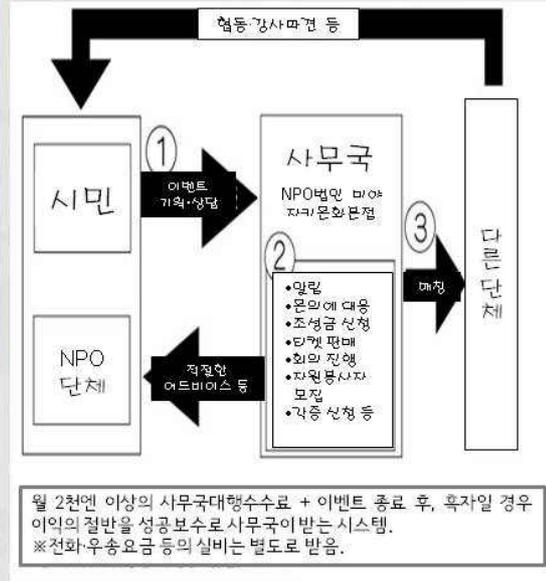
- ▶ 카페와 마을만들기
- 영화+사무국 대행
- 문화스쿨
- ▶ 한옥 교육·관리

## 영화를 통한 문화진흥과 사무국 대행사업으로 지역에 공헌한다

단체명	NPO법인 미야자키 문화본점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宮崎市)
활동 분야	지역활성화·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예술문화의 마을만들기와 시민 활동단체의 사무국 대행 사업을 실시. 사무국 대행 기능으로는 영화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객, 티켓 판매·관리, 매스미디어 대응, 명의후원 및 협찬 의뢰, 홍보활동, 관계기관과의 조정 등 폭넓은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특징	·스스로의 강점을 활용한 사무국 대행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집객 및 제안 기능 ·복수의 관계자들을 조정하는 코디네이션 기능



사회설계연구소



## 지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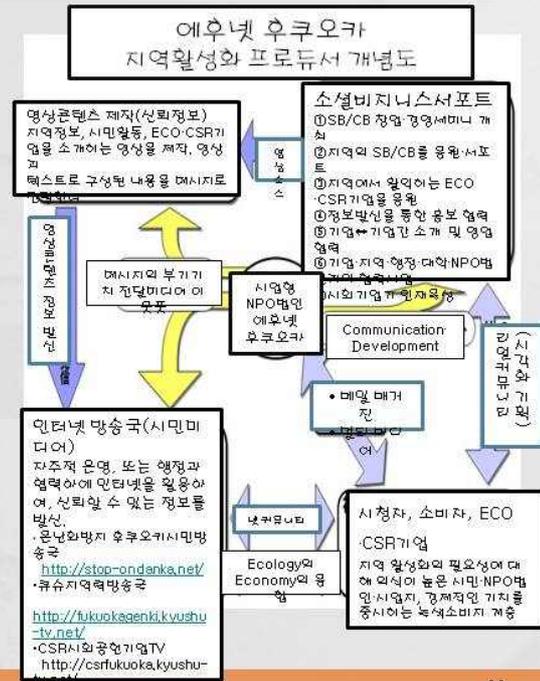
- ▶ 지역정보사이트
- ▶ 지역인터넷방송국
- ▶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
- ▶ 미디어교육, 영상제작 및 중계

## 영상에 의한 '시각화'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

단체명	NPO법인 에후넷 후쿠오카
소재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福岡)시
활동 분야	지역활성화·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인터넷 방송국 '큐슈 지역력(力) 방송국'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전달(配信).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행정의 사업, 시민활동, 소셜비즈니스·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취급한다. 또한 영상 콘텐츠의 전달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매개로 한 비즈니스 제휴의 중개역할도 하고 있다. 행정관련사업으로 '은난화방지 후쿠오카 시민방송국'도 운영 중이다.
특징	·영상 콘텐츠 전달을 통한 지역·기업활동의 '시각화' ·CSR×지역×영상미디어 방식의 제안능력 ·비즈니스 중개를 통한 수익모델



사회설계연구소



## 중간지원조직

# "정부가 아닌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단체명	Unlimited
소재지	런던 아이슬링턴 화이트크로스 거리
활동 분야	유망한 사회적 기업을 금전적으로 지원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지원금을 심사/수상하고 영국 전역의 사회적기업가들과 연계, 영향력 연구, 투자기금 운용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개 비영리 기관 대표의 결탁을 통한 결성</li> <li>· 밀레니엄 어워드를 통한 우수 사회적기업의 심사 및 자금 수상</li> <li>· 지속적인 공모 방식을 통한 지원</li> <li>· 자금 지원 외에도 설립 시기에 운영 교육 지원 등</li> <li>· 영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커뮤니티</li> </ul>



#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단체명	사회설계연구소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활동 분야	중간지원
사업 개요	<p>일상생활사회인 마을 및 지역에 초점을 맞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지역의 진단과 처방</li> <li>· 해외우수사례 소개</li> <li>· 지역설계 아카데미 사업</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을 위한 컨설팅</li> <li>· 살기 좋은 마을·지역을 만들기 위한 마을·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li> <li>· 국내외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일본 지자체의 우수한 조례·정책·사회적기업 로컬메니페스토 사례소개)</li> </ul>

**사회설계연구소**  
 Social Design Institute  
 "지역사회문제와 사회적기업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기업

**주요사업**

- 초대 지원센터
  - 지방자치
  - 환경
  - 복지
  - 교육/문화/관광
  - 무역/경제/교육
  - 안전
  - 자부흥
  - 지역경제
- 실업 지원센터
  - 지방자치
  - 환경
  - 농업
  - 복지
  - 교육/문화/관광
  - 무역/경제/교육
  - 안전
  - 자부흥
  - 지역경제
-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 교육/문화/관광
  - 복지
  - 환경/안전
  - 문화/관광
  - 자부흥
  - 지역경제
  - 자부흥
  - 지역경제
- 로컬메니페스토 지원센터
  - 지방자치
  - 환경
  - 안전

1. 문제해결 2. 2인자(는)는 Location 3. 문제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단계: 1. 문제해결 2. 2인자(는)는 Location 3. 문제해결 4. 문제해결

서울특별시 | 전화: 02-2200-1111 | 이메일: info@sdi.kr | 대표: 김민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1 | 02-2200-1111 | www.sdi.kr

# 인증

- 제1차적으로 최대한 '자조노력'은 당연
- 제2차적으로 정부인증 획득해 조기에 경영 안정화 해야
  - 자금·공간·시설판로·경영노하우 부족 등 애로사항 중첩
  - 정부의 Catch-up System

## □인증요건

- 사업신청서·계획서
- 조직형태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및 영업수익 증빙서류
- 사회적 목적실현 증빙서류

## □ 점수

###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항목
조직관리운영능력(25)	조직형태 사업장 및 기계·비품 설치유무와 적정규모 유급근로자 채용 경영자의 사업의지, 경영능력 등
사회적목적실현(35)	조직설립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과의 연관성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사업성(35)	수익창출 실현 가능여부 업종에 대한 시장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현재 기업의 매출규모 및 자금조달 능력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여부
가점(5)	지속성장가능 여부 교육훈련계획의 충실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
	분과별 특성 반영

## □ 사업신청서, 계획서

[서식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처리기간	60 일
◆ 신청 내용			
사업제명			
사업지역	*사업분야		
주최대상자			
*사업규모 (인원/매출액)			
신청인원	일반 명, 전문인력 명	지원희망금액	원
*경영인선명 희망분야(내용)	<input type="checkbox"/> 통보/아재빙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비즈니스 모델) <input type="checkbox"/> 회계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인력지원) <input type="checkbox"/> 노무 <input type="checkbox"/> 법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참여기관 개요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회원수	노동자 사회적기업(사업 참여 여부 (○,×))	
소재지			
*단체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연금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신청 단 계 현 장	경제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	명	명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	명	명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명	명
부정수급 해당여부 (비고/인원)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고용조정 해당여부 (비고/개월)
210mm×297mm 일반용지 60g/㎡(세활용품)			

[서식 2] 사업계획서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 사업계획			
사업내용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과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시각, 자문, 인력 등) 내용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및 인력 등을 제시		
취약계층비율	사업시행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재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구체적 사업시행일정 기재 그와 관련 사업 및 공동연락, 신청서 첨부 서류(비밀) 기재
취약계층비율 계공비율	취약계층비율(취약계층/총인원) 기재		
사업시행시기	사업시행시 준비의 필요 사항 도출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윤리, 무분류 구분 → 가능한 한 윤리규정과 강령 제정/사업시행 및 공동연락, 신청서 첨부 서류(비밀) 기재
사업수행도구 (6개 코호트별)			
수혜비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 예대, 후원, 장소 등 (가구당 월 3,000원)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예시)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인력 지원(프로젝트사업 기반에 의해 지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는 위한 총보수 2명/1년 등) 사용 및 전문 계획서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 조직형태 증빙서류

### ▶ 조직형태

- <민법>상 비영리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

### ▶ 증빙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유급근로자 및 영업수익

-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유급 근로자 명부 [서식 15]

성명	주민등록번호

표준

대표 \_\_\_\_\_ 와 근로자  
이름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

1. 근로계약기간 : \_\_\_\_\_ 년 월

2. 임금

○ 임금은 월 ( \_\_\_\_\_ 원)으로  
\* 월보시 임금형태(기본급)

○ 임금은 매월 (10)일에 통회  
\*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일부터

3. 근무장소 :

4. 주요담당업무 :

5. 근로시간 : 일 ( )시간, 주

6. 기타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_\_\_\_\_ )

근로계약

2011.3.3

주식회사 사회설계연구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62-15

대표이사 정선철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NPS "유급근로자 및 영업수익" 국민연금공단

수신 주식회사 사회설계연구소 대표자

제 목 자력 취득·상실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국민연금 자력 취득·상실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업장명 : 주식회사 사회설계연구소 통시일 : 2010.10.22  
사업장관리번호 : 201-89-16\*\*\*-0

순번	성명	변동구분	변동일	내역명		처리상태
				전	후	
1	김*진	취득	2010-10-09			정상일액
2	문*준	취득	2010-10-01			정상일액
3	황*광	취득	2010-10-11			정상일액
4	이*민	취득	2010-10-05			정상일액
5	지*도원자교	취득	2010-10-11			정상일액

3. 신고하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1365나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 사회적목적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요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요 목적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3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요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각각 20% 이상)

-기타형  
: 사회적 목적 실현에 제시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제공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위원회 상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정)

[경향마당]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를 아시나요

경인형 | 사회설계연구소

작성일 : 2010-08-19 21:27:07 | 수정 : 2010-08-19 21:27:07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마을에서 모내기, 치산치수, 관상순제 등 관리를 마을 사람들의 품앗이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현대에 이르러 이 같은 전통을 새로이 복원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주민이 마을 만들기를 통해 실천하고 이를 행정당국이 지원하는 '마치조구리' '커뮤니티' 활동이 앞 본과 서구에서 보편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3020대 중 만 명에서도 마을 만들기가 붐고 있지만,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때에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마을 만들기를 도와달라는 제의가 와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을 시작했다. 신수동을 전담해보니 인구 2만2000명에 환경 복지 주거절반 일자리 등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장서 마을문제를 해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으로 설립한 것이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다. 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출자·노동·소비·판매하고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을의 공동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1인당 출자상한액은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주요 업무는 마을문제의 해결이다. 우선 주민들이 소화하기 쉬운 도시농업, 행복도시락, 주거환경개선 사업부터 시작했다. 도시농업사업은 풍나물 및 풍류 제품을 생산하고 배란다·옥상·공터 등을 활용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나뭇잎이

▶ 영종가람 연계순회 임대보가  
▶ 실재 영연유적 수습 대안결과가



## □인증합격·사회적기업 지정서

###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지정 제 호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기관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자립

- 정부 인증기간 중에 경영을 안정화해 시장에서 홀로서기-

## □ 새로운 움직임

- ① 자금 - 인건비 시설비 등의 용자 알선
- ② 일감 - 개업 후 1개 사회적기업 위탁
- ③ 홍보·마케팅 - 자치센터 등과 업무협약
- ④ 사무실 - 유휴 공공시설 활용, 임대
- ⑤ 판로

<참고> 사회설계연구소 (<http://social-design.co.kr>)  
일본 우수사례 3000여개, 사회적기업 약 200여개 소개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ocial Design Institu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like '연구소 소개', '우수사례 소개', '대중·지역의 집단·협업', '지역사회 연계', and '지역개입'. Below the menu is a banner with the text 'Social Design Institute' and a slogan in Korean: '누구나 세상에 건강하고 활약하는 사회를 상상합니다!'.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우수·지역사회(일본) 지자체' and contains four columns of social enterprises, each with a list of categories and radio button options:

조례 지원센터	청학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로컬아나-네스트로 지원센터
<input type="radio"/> 지방자치 <input type="radio"/> 환경 <input type="radio"/> 복지 <input type="radio"/> 교육/문화/관광 <input type="radio"/> 주택/경관/교통 <input type="radio"/> 안전 <input type="radio"/> 지구화 <input type="radio"/> 지역경제	<input type="radio"/> 지방자치 <input type="radio"/> 환경 <input type="radio"/> 농업 <input type="radio"/> 복지 <input type="radio"/> 교육/문화/관광 <input type="radio"/> 주택/경관/교통 <input type="radio"/> 지역경제 <input type="radio"/> 안전 <input type="radio"/> 지구화 <input type="radio"/> 지역경제	<input type="radio"/> 교육/인재육성 <input type="radio"/> 목아지점 <input type="radio"/> 보건/의료/복지 <input type="radio"/> 환경보전 <input type="radio"/> 농림어업 <input type="radio"/> 마을만들기 <input type="radio"/> 지역산업진흥 <input type="radio"/> 자원조직	<input type="radio"/>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radio"/> 지방의정 <input type="radio"/> 시민

Below the table, there are three numbered steps: 1. 문의전화, 2. 찾아오는 길 Location (with a map icon), and 3. 공지사항. To the right of these steps are four buttons for downloading forms: '간이요청서 다운로드', '영고신청요청서 다운로드', '건설청요청서 다운로드', and '이력제이신청서 다운로드'. At the bottom,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ocial Design Institute, including the address, phone number, and website.



# 도시지역 교회의 지역공동체 사례

-북아현동과 아현감리교회-

조 경 열 담임목사  
아현감리교회  
ahyun2022@naver.com

## 1. 취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를 지나 야유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국민일보) 교회가 물량주 의적인 성장에 몰두하다가 보니, 교회는 가난한 자를 잃어버리고 교회직분은 교권이 되었다. 통계 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17.6%로 기독교인들만 교회를 좋아하는 세상이다. 더욱이 '반기련' 활동뿐 아니라 언론매체 마저 기독교를 사회적 걸림돌로 보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 기독교인 마저 과연 교회 안에 자정의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다.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한국교 회 현실을 바라보며 더욱이 미래의 인구 감소시대를 생각하면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대이다. 오 늘의 모임을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담은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마을마다 세워져 있 는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을까?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경험할 수는 없을까?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를 이끌어 가는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까? 교회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북아현동의 모습을 소개한다.

## 2. 발표자 소개

조경열은 인천이 고향으로 감리교회 목사이다. 1953년생(59세)으로 1978년 경기도 강화 길직교 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고(4.5), 부천제일교회에서 부목사(4), 미국 아리조나 이민목회(8.5), 인천효 성중앙교회(10.5)을 경험한 후 2005년 아현교회로 부임한다. 그는 목회지 파송을 교회의 부름으로 생각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부름으로 고백하며 주민과 호흡하는 <성육신 목회>를 구현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효성중앙교회(1995-2005)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목회를 경험하였다. 특히 대우 자동차 실직자를 위한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 계양청소년 유해환경개선운 동, 효성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가 특기할 만하며 계양 마을의제21 계양구 상임대표를 경험한 바 있다.

### 3. 효성중앙교회 성육신 목회

효성동은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하여 1970년대 활발하던 수출산업공단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해가는 마을 인구 7만 여명이 병풍처럼 둘러싼 계양산을 울타리로 오손 도손 모여 살아가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거점교회였던 효성중앙교회는 1996년부터 교회체육대회를 주민초청 마을체육대회로 전환하여 주민들과 호흡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IMF이후에는 실직자 구제 운동을 시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는 효성마을축제한마당이라는 문화행사로 마을주민들의 협력을 받아 개최하게 되고, 2003년부터는 “담 허물기”라는 주제로 이웃들과 새로운 지역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는 실제로 주민 3000여명과 함께 55m 교회담장 허물기, 풍산금속 담장그리기, 마을 옛길 걷기, 쌀 모아 나누기 등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호흡한다. 특히 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민이기에 고향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먼저 미소하며 인사하기, 빈터(베란다) 꽃밭 가꾸기, 아이들 세우기 등으로 손자손녀들이 효성동이 고향임을 사랑하는 마을이 되게 하자는 캠페인을 촉구하였다. 이 때 마침 효성동은 “마을의제21”의 전국시범지역이 되는데 이 후 교회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외에도 마을 부녀회와 함께 운영하는 녹색가게, 지역청소년센터, 어린이집, 해동지 공부방, 효성동음악문화원, 효성주니어 코럴, 실버일자리창출사업인 시니어 클럽, 등으로 발전하며 주민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센터로 계속 주민들과 호흡하였다. 최근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1004m 김밥으로 <1004마을>로 더 유명한 지역사회가 되었다. 최근에는 노인거주주택을 수선하는 <러브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 아현교회의 역사

아현교회는 1885년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이 땅을 찾아온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의 신앙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1888년 스크랜턴의 시병원의 시약소(Aeogae Mission Center)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 주는 장소로 시작하여 찾아오는 이들에게 성경과 찬송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회로 발전한 교회이다. (북)아현동 지역은 지금도 전형적인 중류이하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주민을 형성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활인서가 위치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 1970년대부터 이미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관을 건축하였으며 1980년도에는 민주화 운동의 집회소가 되기도 하였으며 교단 및 한국교회에 김유신, 김지길, 신경하 등 큰 지도력을 배출한 교회이다. 교회가 있는 신촌길 주변에는 가구/웨딩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뉴타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의 조경열 목사는 37대 목사로 2005년에 부임하여 목회에 임하고 있다.

### 5. 아현교회 소개

- 1) 교회목적선언문 : “아현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세워진 성문 밖 첫 교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며, 성경을 가르쳐 교회공동체의 성숙한 지체가 되도록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웃을 섬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교회의 비전 : “언덕 위의 모범교회, 신실한 사람들”
- 3) 주제성구 :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 16)
- 4) 모범교회 핵심가치 : 영성, 공동체, 지역사회
- 5) 교회의 목적 (본질) : 예배, 돌봄, 훈련, 섬김, 사명
- 6) 교회의 4대 사명 (기능)
  - 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②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 ③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 ④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 7) 교회의 구성
  - ① 입교인은 1670명(총교인 2200명) 주일평균회집인원 장년 1000여명
  - ② 교회예산은 약 24억원(경상 20억원)

## 6. 아현교회의 지역사회 목회

2005년에 부임한 후 지역사회 조사에 참여한다. 교회의 관심을 지역사회로 향하게 하는 기초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마침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 동안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교회의 비전과 교회운영시스템을 새롭게 세운다. 마침 교회에는 지역사회의 거점교회로서의 자리 매김이 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더욱이 지역사회의 변변한 건물이 없으므로 지역행사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공간을 사용하게 됨으로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었다. 현재 교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회관을 중심으로 10가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 1) 주차장 개방
- 2) 친교실, 화장실, 쉼터 개방
- 3) 집회실(소그룹실, 대그룹실)개방
- 4) 주민케어센터(사랑의 뒤주-쌀나누기, 무료미용실, 생일잔치, 요구르트방문케어)
- 5) 무료진료봉사실
- 6) 한글교실(다문화가정)
- 7) 통합어린이집
- 8) 음악문화원(피아노교실)
- 9) 노인교실
- 10) 농도생협 운영

## 7. 북아현 지역교회 연합모임

지역공동체 만들기 위하여 먼저 시작한 일은 지역사회 교회를 중심으로 북아현동 교동협의회를 조직한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감리교회 3곳, 장로교회 4곳, 성결교회 1곳, 구세군 1곳, 천주교회 1곳이 있는데 모임을 주선하니 모두 흔쾌히 동의하였다. 이 모임에는 교회의 지도자 뿐 아니라 동장, 구의원, 주민주치위원장을 비롯하여 마을 자생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으로 격월로 정례화 되어 있고, 모임 후에는 칼국수로 식탁교제를 나눈다. 모임은 동장과 구의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보고받고, 교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며, 교회의 사업이 자치센터의 크레딧이 되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현안, 예를 들면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소외계층 돌보기 등에 대하여 협력을 도모한다.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은 대보름 척사대회, 어버이날 행사, 노인 잔치행사, 연말이웃돕기 행사 등이다. 특히 연말이웃돕기 사업은 성탄절 전에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이웃을 섬기는 성탄행사로 참여한다. 즉 주민자치 센터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도록 하고, 교동협의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탄축하나눔행사로 진행함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 8. 북아현동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은 북아현동 마을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10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북아현동 가구와 웨딩 상가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기회로 삼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효성동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북아현동은 안산을 배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큰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일사불란한 교회들의 협력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마을 지도자들의 공로가 크다. 마을 지도자들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였지만 사업별로 책임 교회를 선정하며 지원하는 형식을 위하였다. 특히 가구 상가조합에서는 자발적으로 가구들을 선물로 제공하여 경매로 이웃돕기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열심이 도우면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협력하는 교회의 모습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마을 행사를 이끌었던 마을 지도자들은 최고의 행사를 한 것으로 칭찬받고, 관계자들은 즉시 승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니 기쁨은 배나 되었다.

## 9. 2010년 <굴레방 나눔 한마당>

- 1) 목적 : 북아현동 주민화합의 장, 가구 및 웨딩 상가 활성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2) 행사기간 : 2010년 10월 1-2일
- 3) 참여대상 : 북아현동 마을주민

- 4) 행사장소 : 가구단지 주차장(주행사장), 장애인복지관, 북성초교, 중앙교회,
- 5) 행사내용 : 가구 및 웨딩축제, 주민음악회, 골목길걷기, 쌀모아나누기, 사진전시회, 어린이그림 그리기, 음식바자, 다문화가정결혼예식, 기증가구경매(수익금으로 이웃돕기)
- 6) 2011 <굴레방 나눔 한마당> : 이 행사를 2011년도에도 지속하기 위하여 실무기획팀이 구성되어 준비하고 있으며 2011년에 지역공동체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굴레방 한마당은 앞으로 마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모델이 되는 사람(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일을 중요하게 다루어 간다.
- 7) 비전 : 북아현동을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목표이다. 교동협의회는 굴레방 나눔 한마당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마을 인문학 코스처럼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아울러 지역교회의 연합에도 힘써 지역사회의 교회연합 모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10. 비전

연초에 일본의 복지 생협 현장을 방문하였다. 복지생협이란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지향하고 배워야 할 모습으로 보였다. 여기에 교회공동체가 앞장서서 이미 기존의 속회(구역) 소그룹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민공동체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이미 지역사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아현교회에서는 농도생협이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 1300명, 연 예산 5억 원 정도로 근근히 꾸려나가는 작은 생협이지만 이 생협 운영의 경험은 복지생협운동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 11. 과제

교회의 과제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학교 혹은 복지시설 운영에 관심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의 거버넌스로서 지도력을 취하는 일이다. 이해관계로 시작한 기관을 교회가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역사회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목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섬기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연대가 더 친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공동 관심의 사업을 전개한다. 마을 인문학 코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에 대하여 관심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를 역동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속회 소그룹공동체... 교회가 그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교회 사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북아현동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계획

북아현동 마을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10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북아현동 기구와 웨딩상가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기회로 삼고자 함

### □ 추진방향

- 북아현동 주민이 공감하는 **마을축제를 통해 "화합의 장"** 마련
- 경기불황과 지역여건 등으로 침체 분위기에 놓인 **기구와 웨딩 상가의 활성화** 기대
-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 **지역공동체라는 의식과 자긍심** 부여

### □ 추진현황

- 마을만들기 사업 컨설팅 회의
  - 기간 : 2010. 3. ~ 4.(1~4차)
  - 대상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 공무원 등
  - 장소 : 동주민센터 문화사랑방(3층)
  - 강사 : 문홍주 교수(한국자치학회)

### - 마을사업 간담회 진행과정

#### 외 1차 회의 : 2010. 3. 15(월)

- ◎ 내용 : 마을사업 준비과정 소개, 주민의견 설문조사 제안



#### 외 2차 회의 : 2010. 3. 31(수)

- ◎ 내용 :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분석 (연세대 자원봉사 학생3명)
- ◎ 결과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9개사업 축약



#### 외 3차 회의 : 2010. 4. 14(수)

- ◎ 내용 : 9개사업 → 3개사업 (**4차회의에서 최종사업 결정**)  
→ 2010. 4. 28(수) 19:00
- ◆ 계속사업 : 꽃길 기구기, **기울하늘 음악회**  
↳ 2010년도는 마을축제로 확대 논의  
(웨딩과 기구축제 음악회, 추억의 북아현길 걷기 등)
- ◆ 신규사업 : 마을의 추억 책자발간
- ◆ 마을사업단 구성 동장에게 위임 (4차회의 보고예정)



#### 외 4차 회의 : 2010. 4. 28(수)

- ◎ 내용 : 마을사업 결정 및 마을축제명 선정
- ◎ 결과 : 북아현동 마을사업으로 **마을축제 결정**
- ◆ 마을축제명 선정 : **2010 글래방 공감 축제**
- 프로그램 : 웨딩과 기구축제, 음악회(주민노래자랑), 마을주민과 꽃길 걷기, 꽃길조성 등
- ◆ 마을사업단 구성 결정 : 총 40명

□ 마을축제 기획팀  
(2010. 6월중)

- ◆ 인원 : 10명 이내  
· 직능단체 전문가위원 및 직원으로 구성
- ◆ 역할 : 마을축제 총괄  
· 마을축제 기획 및 행사준비 및 진행

마을사업단  
(2010. 4. 27 구성)

- ◆ 인원 : 46명  
· 주민자치위원(8명)  
· 주민참여위원 (7명)  
· 행정지원위원 (7명)  
· 전문가위원(7명)  
· 자문지도위원(16명)
- ◆ 역할 : 마을축제 참여  
· 축제준비 및 협조

실무 추진팀  
(2010. 6월중)

- 가구축제 추진팀
- 웨딩축제 추진팀
- 음악회 추진팀
- 꽃길 조성팀

□ 마을축제 개요

- 행사 명 : 글레빙共感 축제
- 행사기간 : 2010. 10월중(2일간 진행)
- 참여대상 : 복이현동 마을주민
- 행사장소 : 추후 결정
- 행사주관 : 복이현동 직능단체 동주민센터
- 행사협조 : 가구상기반영회, 웨딩협회, 장애인복지관, 북성초교, 추계예술대 등
- 행사내용 : 가구 및 웨딩축제, 음악회(노래지랑), 마을주민과 복이현 골목길 걷기 등

□ 세부사업 추진사항

- 마을축제 첫째날 : **오 가구와 웨딩축제**
  - 다문화가정 무료 합동결혼식 및 노인부부 금혼식
  -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일 웨딩플래너 상담 및 복이현동의 명물 "가구거리"와 웨딩거리" 홍보
  - 먹거리 마당으로 마을주민 참여 유도
  - 추계예술대학생의 거리기장 행렬
  - 마을주민과 함께 추억의 복이현길 걷기
  - 사진콘테스트
  - 어린이참여행사 : 동네 그리기 대회 및 캐릭터 행사
  - 청소년 참여행사 : 농구대회 및 퀴즈대회
  - 노인참여 행사 : 영정사진 촬영 및 게임 등
- 마을축제 둘째날 : **오 마을 음악회**
  - 마을주민 노래지랑 개최 : 사전 예선심사를 거쳐 행사당일 본선 대회 개최
  -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
- 마을축제에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기부 접수대 마련
  - 참여 주민에게 라면봉지 분량의 쌀을 기부 받고 T셔츠 한 장씩 나눠 줌
  - 축제 마지막 날 기부로 모아진 쌀을 마을주민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나눔의 시간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길조성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기간 : 2010. 5. ~ 6.(2개월)</li> <li>- 조성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아현길 L 500m : 원목 화분 16개</li> <li>◆ 두산(아) L 300m : 화분 50개</li> </ul> </li> </ul> </li> <li>○ 소요예산 : 금육천육백만원(₩6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비 : 18,500,000원</li> <li>- 홍보비 : 10,000,000원</li> <li>- 시설비 : 4,000,000원</li> <li>- 시상품 : 4,000,000원</li> <li>- 기자설명회 : 1,000,000원</li> <li>- 진행물품비 : 1,500,000원</li> <li>- T-셔츠 구매비(3,000매) : 20,000,000원</li> <li>- 초청팀 사례비 : 1,500,000원</li> <li>- 진행요원 식대비 : 1,500,000원</li> <li>- 준비비 : 2,000,000원</li> <li>- 평가회비 : 1,000,000원</li> <li>- 예비비 : 1,000,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향후추진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만들기 최종사업안을 토대로 마을축제 전략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0. 6. 9(수) 11:00</li> <li>- 장 소 : 동주민센터 문화사랑방(3층)</li> <li>- 참석대상 : 북아현동 교동협의회 위원 및 마을기획팀원</li> </ul> </li> <li>○ <b>마을만들기 사업 보고회(5차) : 2010. 6. 18(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청 대강당(6층)에서 사업보고</li> </ul> </li> <li>○ 마을축제 관련 유관단체 및 각 직능단체에 회의시 홍보 및 적극 참여 요청 : 2010. 6 ~ 9월</li> <li>○ 마을기획팀과 전략회의를 통해 마을축제를 위한 단계별 추진</li> </ul> </li> <li>□ <b>행정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축제 기획팀과 실무추진팀을 구성 : 2010. 6월중</li> <li>○ 마을만들기 사업 소요예산을 구청 자치행정과로 2010.6. 16일까지 요청</li> </ul> </li> </ul>
--	---

# 목회사회학연구소

인터넷 카페: [club.cyworld.com/kpsi](http://club.cyworld.com/kpsi)

목회사회학이라는 틀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문공동체의 이름입니다. 본 연구소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과의 통합적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를 밝히고 그 속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사회학을 통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목회적 자료로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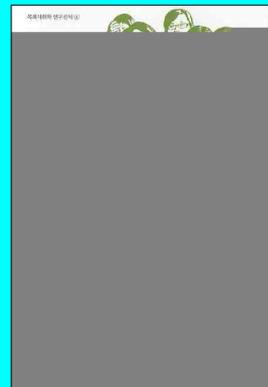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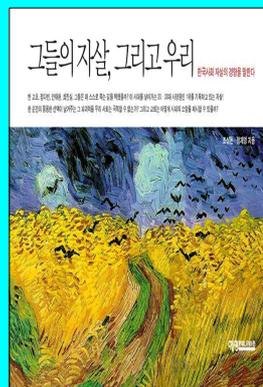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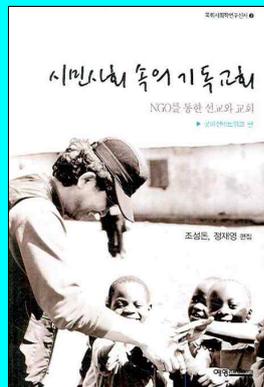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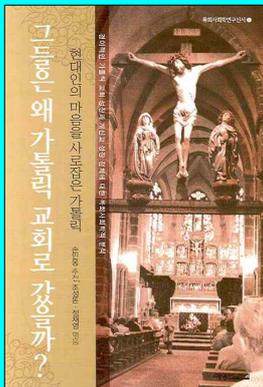
우리 연구소는 2006년 11월 '2005 인구주택총조사 그 이후, 연구프로젝트 "가톨릭으로의 개종자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톨릭 성장"이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며 매 포럼마다 연구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학문적 봉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연구 모임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첫 포럼의 결과물을 <목회사회학연구신서> 시리즈 첫 번째로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예영, 2007)로 출판하였으며, '기독교와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세 차례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그 결과물도 역시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서울: 예영, 2008)로 출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자살에 대하여 연구한 성과를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예영, 2008)로 출판하였고, 최근에는 네 번째 연구신서인 「더불어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예영, 2010)를 출판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상중이며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2010년 8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교계 여러 단체와 협력하고 자살 관련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1기 자살예방학교>를 열었고, 2기 학교를 2011년 6월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회사회학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일상과초월(cafe.daum.net/dailytrans)> 모임도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소장 : 조성돈 [huioscho@naver.com](mailto:huioscho@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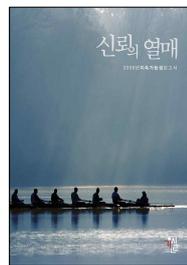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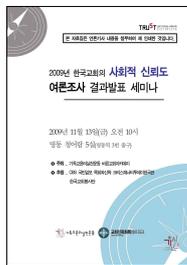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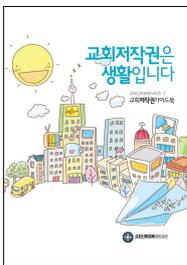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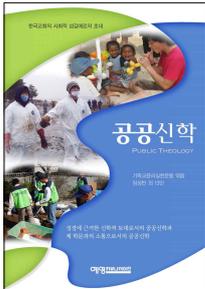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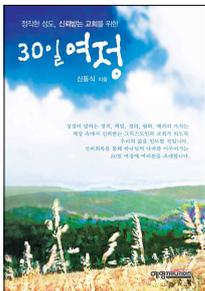
- 부소장 : 정재영 [ccyong@gspt.ac.kr](mailto:ccyong@gspt.ac.kr)



# 기윤실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교회의 사회적책임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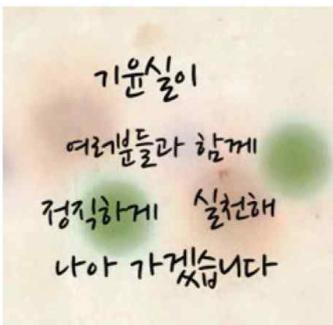
관련 도서/자료집 목록(2007년~2010년)

범주	사업명
교회신뢰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2007.5)</li> <li>• 한국교회신뢰지표 개발(2007.11)</li> </ul>
저작권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2007.5)</li> <li>•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 교회저작권 가이드 북 발간(2007.11)</li> </ul>
공공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신학 책자 발간(예영, 2009.4)</li> </ul>
사회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2008.10)</li> <li>•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환경편(2009.4)</li> <li>•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문화편(2009.6)</li> <li>•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대안경제편(2009.9)</li> <li>•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교육편(2009.12)</li> <li>•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자료집 / 보고서(2008.11)</li> <li>•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 보고서(2010.1)</li> <li>•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백서(2010.2)</li> <li>• 2010년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백서(2010.7)</li> <li>•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책임</li> </ul>
신뢰도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8.11)</li> <li>•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9.11)</li> <li>•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10.12)</li> </ul>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1회~8회)</li> <li>•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대한기독교서회, 2001.4)</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 사회적책임운동 헌장과 행동규범 선포(2007.6)</li> <li>• 기독교와 정치실천 컨퍼런스 자료집(2007.6)</li> <li>•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08.4)</li> <li>•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예영, 2009.2)</li> <li>•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2010.4)</li> </ul>



모든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trusti.kr](http://www.trusti.kr)) 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단행본 제외)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공동대표(창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가?’

-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동원 이사장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 “이 시대의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재중 공동대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 2011년 기윤실 주요사업

-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정직윤리운동
- 목회자윤리운동, 사회이슈실천운동 (전월세값동결운동 등)
-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교회신뢰운동
-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재생종이사용캠페인, 지역사회와함께하는교회운동
-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정치윤리운동 기윤실 포럼

이사장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공동대표 이장규(삼일,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박은조(분당샘 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본부장 김선옥 사회정치윤리운동본부장(송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 정직윤리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실천신대원 교수) 자치기구장 이상원 신학위원장(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정병오 교사모임 발기인(좋은교사운동 대표), 조홍식 사회복지공동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처장 조재호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2-794-6200 후원계좌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www.cemk.org

교회와함께하는  
지역공동체세우기